

THAILAND

ENTRY STRATEGY 

2021 국별 진출전략

태국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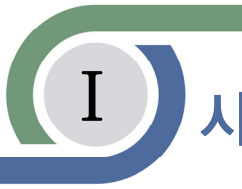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kotra 2021 태국 진출전략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침체된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4
나. '태국 4.0' 추진 핵심산업 분야 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이슈	5
다. BCG(Bio-Circular-Green) 이코노미 모델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6
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정착 및 가속화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 분석	2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4
나. 수출입	25
다. 투자 진출	28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31
가. 교역	31
나. 투자	3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35
III. 진출전략	37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7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8
3. 한-태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3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9
3. 2021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50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3
부 록	
대(對) 태국 K패키지	54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1년 태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겠으나, 제약 요인 상존

- 2020년 팬데믹으로 하락했던 기저효과로 2021년 3~6%대의 성장세 기록 전망
* 2021년 태국 경제 전망: 태국중앙은행(3.6%), 아시아개발은행(3.5%), IMF(4.0%), 세계은행(4.9%)
- (호조 요인) 전염병 우수방역국가, 태국정부 경기부양책 시행, 태국 4.0 정책 추진 관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 전년 대비 소비심리 개선
- (부진 요인) 주변국 봉쇄조치 지속,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정불안, 높은 가계부채, 가뭄 또는 홍수 등 기후 요인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위험 요인) 글로벌 교역 등 대외여건 악화, 미·중 갈등격화, 미국 대선 결과, 감염병 공포심리 극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등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I)	백만 명	67,000	67,240	67,460	67,650	67,793	69,626	69.8	69,951
명목GDP(I)	십억 달러	407.3	401.3	412.4	455.3	504.9	543.6	509.2	536.8
1인당명목GDP(I)	달러	6,080	5,968	6,113	6,731	7,448	7,807	7,295	7,675
실질 성장률(I)	%	1.0	3.1	3.4	4.0	4.1	2.4	-7.1	4.0
실업률(I)	%	0.8	0.9	1.0	1.2	1.1	1.0	-0.4	1.8
소비자물가상승률(I)	%	1.9	-0.9	0.2	0.7	1.1	0.7	-1.1	0.6
재정수지(GDP 대비)(E)	%	-2.0	-0.4	-2.7	-2.5	-2.5	-1.9	-6.3	-5.1
총수출(N)	십억 달러	226.7	214.1	213.5	233.7	251.1	242.7	218.7	228.1
(대한(對韓) 수출)(C)	"	4.5	4.1	4.1	4.6	4.9	4.8	3.9	4.4
총수입(N)	"	209.4	187.2	177.1	201.1	228.7	216.0	183.0	191.1
(대한(對韓) 수입)(C)	"	8.5	7.0	7.3	8.0	8.9	8.7	6.6	7.0
무역수지(N)	"	17.3	26.1	35.8	32.6	22.4	26.7	35.7	37.1
경상수지(T)	"	11.6	27.8	43.4	44.0	28.5	38.4	12.6	N.A
환율(연평균)	현지/US\$	32.48	34.25	35.30	33.94	32.31	31.05	31.6	31.4
해외직접투자(U)	억 달러	55.8	16.9	123.7	169.6	184.4	118.5	N.A	N.A
외국인직접투자(U)	억 달러	48.1	56.2	18.2	66.6	104.0	41.5	N.A	N.A

주: 2020년은 추정치, 2021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I), EIU(E), 태국중앙은행(T), 태국상무부(C), UNCTAD(U) 및 KOTRA 방콕무역관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경제) 강력한 전염병 대응을 바탕으로 경제·민생 어려움 등 위기국면 타개에 총력
- (정책) '태국 4.0' 정책 추진 핵심산업 분야 내 GVC 재편 가속화 이슈
- (환경) 'BCG(Bio Circular Green) 이코노미' 모델로 지속가능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사회) 코로나19로 인한 유통구조 개편,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가속화

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침체된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 민간협력을 통한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경기부양책 추진

- **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결정기관으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22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상황운영센터(CESA)' 설립**(2020년 8월)
- 2020년 중 **3차례에 걸친 정책 금리 인하로 역대 최저 금리(0.5%) 수준 유지**,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존재
- 2020년 승인된 **1.9조 бат(608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집행 지속 예정**
 - 저소득층 현금지원 등 서민생활 지원(약 6,000억 бат), 소프트론 제공 및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중소기업 지원(약 5,000억 бат), 100만 명의 신규 졸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목표 등 실시
 - * 2020년 9월 기준 1.9조 бат(608억 달러) 중 8,000억 бат(256억 달러) 집행 완료
- **2021년도 회계예산 확대 편성 및 차입금 발행을 통한 정부지출 및 투자 확대**
 - 차년도 회계예산은 2020년 대비 2.7% 증가한 3.29조 бат(1,071억 달러) 승인
 - 1.47조 бат(479억 달러) 규모의 차입금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책 실시, 인프라 투자, 부실 공기업 구제 등에 활용할 계획
 - * 이로 인해 2021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57.7% 수준으로 증가 예정(상한선 60%)

□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 하,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모색

- 2020년 10월부터 태국 내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코로나19 발생 저위험국 출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특별관광비자(STV: Special Travel Visa) 발급 실시
- 향후 2년간 태국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초점은 '지역사회 기반 경제개발', '경쟁력 향상', '인적자원의 질 향상', '인프라 개발'의 4대 이슈에 맞춰질 예정으로 관련 협력 방안 강구
- 태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외개방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수 방역국가 간 위기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논의

나. '태국 4.0' 추진 핵심산업 분야 내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이슈

□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 내 인접국가 이전(Near-Shoring) 관련 이슈

- **(자동차)** 2020년 중 미국 GM 철수 결정, 주요 완성차 브랜드 조업 중단 발생
 - 2020년 2월 미국 GM은 태국 내 '쉐보레' 브랜드 판매를 중단하고 라용 공장을 중국 장성모터스에 매각하기로 결정
 - 2020년 5월 록다운 기간 중 소·부·장 공급망 차질 및 수요 감소로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 조업 중단 실시
- **(전기·전자)**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태국 이전 고려 대기업 10여 개사* 존재, 샤프, 파나소닉** 등은 생산비용 절감 위해 일부 생산라인 태국→인니/베트남 이전
 - * (이전) Ricoh(프린터), Besser(LCD), (증설투자) Seagate(HDD), Delta Electronics(냉각팬필터) 등
 - ** (샤프) 트윈팁 세탁기 인니 이전 계획, (파나소닉) 세탁기, 냉장고 베트남 이전, R&D센터 폐쇄 계획

□ 글로벌 공급망 유치 정책 실시 및 첨단산업 집중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태국으로 대규모 생산기지 이전 시 5년간 추가로 법인세 50% 감면을 실시하는 '타일랜드 플러스 패키지(Thailand Plus Package)' 정책 실시(2019년 9월)
 - * (조건) 2020년 중 5억 바트(1,600만 달러) 이상 또는 2021년 중 10억 바트(3,210만 달러) 이상 투자
-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태국을 '아세안 전기차 허브(Hub)'로 만들기 위한 '태국 전기차 로드맵(Thailand Smart Mobility Roadmap(2020~2030))' 발표(2020년 3월)
 -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0~25만 대, 전기버스 3,000대 생산 목표
 - * 2019년 기준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 EV 802대, 하이브리드 14.8만 대

〈태국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2020~2030)〉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기간	2020~2022년	2021~2025년	2026~2030년
생산 목표	6~11만 대	10~25만 대	75만 대

자료: 태국 산업부

□ 태국 정부, 발 빠른 대응을 통한 GVC 재편 이슈를 '기회요인'으로 전환

- '태국 4.0정책'의 12대 중점 육성산업(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글로벌 공급망 (GVC) 재편에 선제적 대응 및 인근 아세안 국가와 상호협력 확대
 -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모터, 센서, 충전소 등 전기차 관련 부품 및 인프라 수출 및 현지 투자 진출을 통하여 기존 GVC 지각변동에 기여
 - (전기전자) 프리미엄 가전 및 IoT 장착 스마트 가전 태국 내 생산 확대 고려

12대 중점 육성산업

-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기술 ⑤ 미래식품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 교육

다. BCG(Bio-Circular-Green) 이코노미 모델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자족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모색

- 'BCG 이코노미 모델'은 2019년 8월 빠라웃 짬오차 태국 총리 지시로 고등교육 과학연구혁신부 주축으로 정립된 태국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모델'
 - 전 태국 국왕의 '자족적 경제(Sufficient Economy)' 사상과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타일랜드4.0 정책 지지

□ 농업·의료·신재생에너지·환경·관광분야 신기술 적용 및 진출 기회 포착

- 태국 정부는 4대 핵심산업*의 규모를 현재 3.4조 바트(GDP 비중 21%)에서 향후 5년 내 4.4조 바트(GDP 비중 24%) 수준으로 집중 육성 추진
 - * 4대 핵심산업: 식품 및 농업, 의료 및 웰니스, 에너지, 소재, 바이오화학, 관광 및 창조경제
- BCG Model 4대 핵심산업 분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출
 - 정밀농업기술, 스마트 그린하우스, 유전자 치료, 바이오매스, 스마트시티 등

〈태국 BCG 경제모델 핵심산업별 추진과제〉

핵심산업	세부 추진과제
식품 및 농업 프리미엄화	스마트 팜, 정밀농업, 신식물 융종기술, 신식품 작물 경작 및 축산, 위성기술 활용 ☞ 제품 차별화, 기능성 식품 / 프리미엄 농산물 개발, 토지 이용 효율성 확대
의료 및 웰니스 선진의료 정착	유전자 치료, 백신, 복제약품, 의약품 개발, 원격의료, 임상실험 ☞ 태국의 아세안 의료 허브화,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학 발전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환경보존	(농산물 및 폐기물) 경작 잔여물, 산업 폐기물 → (투자진흥) 바이오매스 발전/바이오 정제, 수력발전 → (산업발전) 에탄올/바이오디젤, 바이오 플라스틱/생화학, 수소전기 활용 ☞ 2036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0%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목표
관광 및 창조경제 지역상생·협력	신규 관광도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웰니스 관광 등 ☞ 양질의 관광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표준 시스템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태국 투자청(BOI), 태국 국가유전공학및바이오기술센터(BIOTEC) 자료 종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협력 경제 성장 모델을 통한 변화와 협력 확대

- 정부간(G2G), 기업간(B2B), 대 고객(B2C) 차원의 개선 방안 모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0년 7월 태국 정부는 BCG 경제모델 추진을 위해 18개 정부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태국 주요 경제 특구지역 내 BCG Model 4대 핵심산업 육성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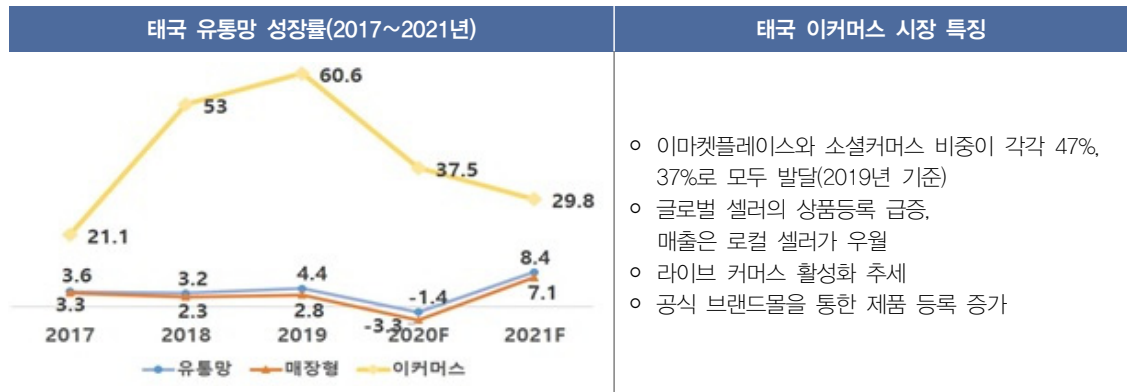
- ① 북부 경제 회랑(NEC): 식품 안전, 농업 산업 및 식품 가공 등
- ② 북동 경제 회랑(NEEC): 대체 단백질 연구, 곤충 양식, 메콩 강 문화 관광 산업개발 등
- ③ 동부 경제 회랑(EEC): 과일 생산과 12대 첨단 미래산업(에너지, 철도, 환경 등) 등
- ④ 남부 경제 회랑(SEC): 정밀 양식, 할랄 식품, 신규 관광지 개발 등

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정착 및 가속화

□ 온라인 유통망 급성장

- 모바일 퍼스트 국가 태국, 록다운(2020년 3~5월)으로 가속화된 온라인 쇼핑 트렌드, 록다운 해제 이후에도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유지
- 태국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37.5%, 29.8% 성장하며 68.1억 달러, 88.5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유로모니터)

* 태국시장 1위인 라자다는 2020년 매출 35% 증가 예상



자료: 유로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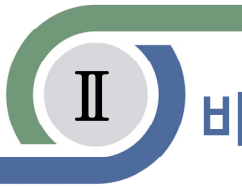
자료: 현지언론 종합

□ 결제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장까지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대두

- (결제) 2020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뱅킹 이용건수 각각 107.7%, 65.6% 증가, 이용금액은 각각 26.4%, 27.7% 증가(BOT)
- (음식 배달서비스) 2020년 상반기 음식배달 서비스 이용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 2020년 중 78~84% 성장률 기록 전망(카시콘 경제연구소)
- (화상회의) 2020년 3월, 시스코(Cisco)의 화상회의시스템(WebEx) 활용 건수는 전월 대비 766%, 이용자 수는 3,013%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상승, 태국 정부는 화상회의를 법적으로 인정
- (게임) 록다운 기간 중 매출 50~200% 증가, 2020년 예상 태국 게임시장 성장률 15.8%, 매출(270억 바트)의 71%가 모바일 및 태블릿에서 발생할 전망(AIS)

□ '모바일'을 중심에 둔 사업 진출,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보안 이슈에 관심

- 태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이 '모바일'에 있음을 인식하고, 진출 시 모바일 친화적 사업 환경 구축 필요
- 태국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 2021년 전격 발효될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 보안 문제 등에 유념하여 접근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헌법개정 논의, 반정부 시위 관련 모니터링 필요
- (경제) 2020년 기저효과로 2021년 태국 경제는 성장 전망
- (산업) 제조업·관광·농업이 3대 산업으로 아세안 최대 제조업 생산 및 수출기지
- (정책)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12대 중점산업 육성 및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가. 정치 환경

□ 2020년 중 주요 정당 해산 발생 및 내각 개편으로 '신경제팀 구성'

- 2020년 2월, 법원의 지난 총선(2019년 3월 실시)에서 신규 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퓨처포워드당 (FFP)' 해산 명령
- 2014년 군부집권 이래 태국 경제를 이끌어온 쏘낀 짜투씨피탁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인사 6인 사임, 8월 내각 개편으로 '신경제팀 구성'
 - * 경제부총리, 재무부, 에너지부,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노동부 장관, 국무총리실 장관 새로 임명
-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효과적으로 이끌고자 '경제상황운영센터' 설립
 - *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22인의 경제 관련 정부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태국 주요 정당 현황〉

정당명	주요 내용
프어타이당 (Pheu Thai Party)	· 당 대표명: 솜퐁 아먼위왓(Sompong Amornvivat) · 정치 성향: 친탁신파 · 의석수: 134
팔랑프라차랏당 (Palang Pracharat Party)	· 당 대표명: 프라윗 웅수완(General Prawit Wongsuwan) · 정치 성향: 친군부 정당(쁘라윗 총리지지), 연합정당 주도 · 의석수: 121
품자이당 (Bhumjaithai Party)	· 당 대표명: 아누틴 찬위라군(Anutin Charnvirakul) · 정치 성향: 팔랑프라차랏당 연합 정당 · 의석수: 61
전진당 (Move Forward Party)	· 당 대표명: 피타 림차른룻(Pita Limcharoenrut) · 정치 성향: 진보/반정부, 헌법개정 지지 · 의석수: 54 · 비고: 2020년 2월 해산된 신미래당 계승당
민주당 Democratic Party	· 당 대표명: 주린 락사나위쉴(Jurin Laksanawisit) · 정치 성향: 반탁신파, 보수중도 팔랑프라차랏당 연합 정당 · 의석수: 52

자료: 현지 언론 종합

□ (기타) ‘반정부 시위’ 실시 및 2017년 개정된 20차 헌법개정 논의 대두

- 퓨처포워드당 해산 시기부터 대두된 ‘독재반대’, ‘국회해산’,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2020년 7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속
- 20차 헌법의 일부 조항(상원의원 구성 및 역할, 통치권 등) 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CDA) 설립에 관한 여당(연합정당) 및 야당의 합의 도출
 - 헌법개정 논의는 초기 단계로 2020년 9월 기준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
 - 헌법 개정 완료까지 2년여 소요 예상
- 연합정당의 정책 실행 불안정성 및 시위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나. 경제 환경

□ (GDP) 태국경제는 2020년 팬데믹 피해로 인한 기저효과로 성장세 전환 전망

- 2021년 태국 경제는 2020년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공공부채, 실업률 등 거시 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으로 3~6%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지속 및 대형 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예정
 - 코로나19 상황 진전으로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산업 서서히 회복, 수출 증가 등 기대
 - 공공부채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확대 재정정책 추진 예상

* 공공부채(GDP 대비 %): (2017년) 41.9 → (2018년) 42.1 → (2019년) 42.4% → (2020년(F)) 47% → (2021년(F)) 58%

** 2021년 회계연도 정부예산(2020년 10년 1월~2021년 9월 30일): 3.9조 바트(1,052억 달러), 전년 대비 2.7% 증가

〈태국 거시경제 지표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F)
국내총생산(GDP)	2.9	3.3	4.1	4.2	2.4	-7.3~-7.8
민간 소비	2.2	3.0	3.1	4.6	4.5	-3.1
정부 소비	3.0	2.2	0.1	2.6	1.4	3.6
총고정자본형성	4.4	2.9	1.8	3.8	2.1	-5.8
민간 투자	-2.1	0.6	2.9	4.1	2.8	-10.2
정부 투자	28.4	9.6	-1.4	2.9	0.2	8.6
수출	-5.9	0.1	9.5	7.5	-3.3	-10.0
수입	-10.6	-5.1	13.2	13.7	-5.6	-15.4

자료: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교역) 2019년부터 수출입 감소세로 전환, 2020년 감소세 심화

- 태국 교역은 2019년부터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의 교역 감소, 바트화 강세의 영향으로 감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입 감소세 심화
 - 2020년 태국 교역은 **수출 △10.2%, 수입 △15.4% 기록 전망**
 -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 개선으로 수출입 성장세 전환 전망

〈태국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US\$ 십억,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F)	2021년(F)
수출	금액	233.7	251.1	242.7	218.7	228.1
	증감	9.5	7.5	-3.3	-10.2	4.3
수입	금액	201.1	228.7	216.0	183.0	191.1
	증감	13.2	13.7	-5.7	-15.4	4.4
무역수지		32.6	22.4	26.7	35.7	37.1
교역액		434.8	279.8	458.7	401.7	419.2

자료: 2016~2019, Global Trade Atlas, 2020년 전망치 NESDB, 2021년 전망치 BOT

□ (가계부채) 태국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부터 감소하다 2018년부터 증가세로 반전 2020년 1분기 83.8%, 13.6조 바트(4,341억 달러)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태국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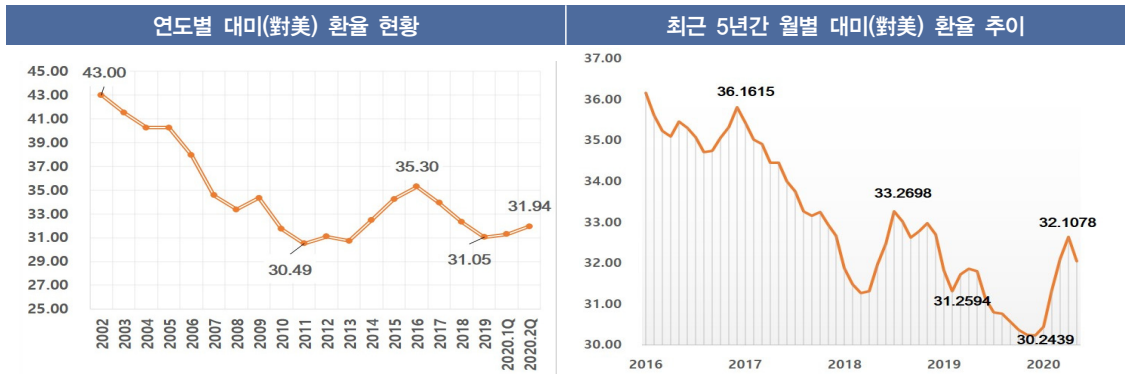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바트,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가계부채	11,584	12,101	12,829	13,484	13,588
GDP 대비 비중	79.4	78.1	78.4	79.9	83.8

자료: 태국 중앙은행

□ (환율) 대미(對美) 환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바트의 대미(對美) 환율은 2017년부터 평가절상 추세 지속
 - 2019년 평균 환율은 2018년 대비 3.9% 하락한 달러당 31.05바트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최대 환율 하락국에 해당
 - * 연말 환율 대비 하락률: 7.1%
 - 코로나19 관련 세계 경제 침체국면 전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 가능성 존재
 - 단,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로 바트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
 - * 2020년 예상 태국 환율 전망치: 1US\$=30.5~32.5(상무부 무역정책전략실, 2020년 7월)



자료: 태국 중앙은행

다. 산업 환경

- 태국의 3대 산업은 **제조업, 관광, 농업**으로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자본재 및 부품 소재의 폭넓은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축
- 태국은 **가공무역**을 통해 외자기업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기지 담당
 - * 2020년 상반기 수출상품 구성: 전자(14.4%), 농수산 식품(13.4%), 자동차(11.9%), 기계·장비(7.6%), 전기기기(5.6%) 순으로 제조업 제품 비중 83.6%
- '태국 4.0' 추진에 따른 **12대 미래산업 육성정책**으로 산업 생태계 변화 예상

□ 자동차 산업

- 태국은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
 - 자동차 부문은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으로 완성차 18개사, 1차 벤더(Tier 1) 700여 개사, 2, 3차 벤더(Tier 2, 3) 1,700여 개사 생산 참여
 - 태국 자동차 산업 종사자는 약 89만 명 수준
 - 태국 정부는 1960년부터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소형 상용차(픽업) 생산에 강점 보유 (2019년 자동차 생산 세계 11위, 상용차 생산 세계 5위)

〈2019년 세계 자동차 생산 국별 순위 현황〉

(단위: 백만 대)



자료: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 태국은 2019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2.2% 수준인 201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
 - 2019년 기준 태국은 자동차 생산 세계 9위, 상용차 생산 5위로 아세안 역내국 1위 고수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기준 자동차 생산은 60.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1% 감소, 2020년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각각 140만 대, 65만 대 예상

〈태국 자동차 생산·판매·수출 현황〉

(단위: 백만 대,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월
생산대수	1.91	1.94	1.99	2.17	2.01	0.61
(증감)	1.7	1.7	2.3	9.0	-7.1	-43.1
판매대수	0.80	0.77	0.87	1.04	1.01	0.33
(증감)	-8.5	-3.9	13.4	19.5	-3.3	-37.2
수출대수	1.20	1.19	1.14	1.14	1.05	0.35
(증감)	6.8	-1.4	-4.1	0.1	-7.6	-37.4

자료: 태국산업연맹(FTI)

- 태국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2020~2030)’을 수립
 - 로드맵은 향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전기차 이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75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함

〈태국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2020~2030)〉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2020~2022년	2021~2025년	2026~2030년
생산 목표	6~11만 대	10~25만 대	75만 대
세부 내용	· 정부: 16,000대 · 민간: 50,000대 · 전기 오토바이: 53,000대	· 에코 전기차: 10만 대 → 25만 대 · 스마트시티 버스: 1,000대 → 3,000대	· 전기차 생산 75만 대 (전체 자동차 생산의 30%)

자료: 태국 산업부

- 태국 정부 향후 5년 이내 태국을 **아세안 전기차 생산 허브화**를 목표로 전기차 집중육성정책 실시로 **태국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의 급격한 변화 예상
 - 태국 내 전기차 생산은 2009년부터 실시, 현재까지 13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청 승인 획득

〈태국 전기차 연간 생산 능력〉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352,500대	97,640대	93,220대	188,220대

자료: Industry Today

□ 전기·전자 산업

○ 태국 전기·전자산업 제조업체는 2,500여 개 사로 고용인원은 약 75만 명 수준

– 가정용 전자부품은 1,000여 개 사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브랜드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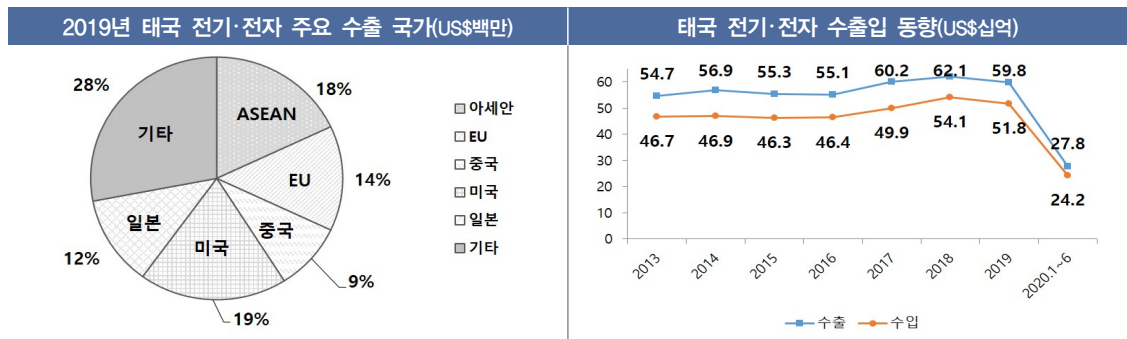
*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샤프, 도시바, 파나소닉, Daikin, 캐리어, Electrolux 등

– 전자 부문에는 Western Digital, Seagate 등 HDD 및 IC 글로벌 기업이 진출

○ 태국 전기·전자 시장은 약 700억 달러 규모

– 수출은 2019년 기준 598억 달러, 2020년 상반기 기준 278억 달러로 태국 생산 전자부품의 70~80%를 수출

– 주요 수출 전자부품은 수출액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와 집적회로(IC)로 태국은 전 세계 HDD의 약 40% 이상을 생산



자료: 태국전기전자연구소(EEI)

자료: 태국전기전자연구소(EEI)

□ 식품 산업

○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Food Basket of Asia)’ 또는 ‘세계의 부엌(The Kitchen of the World)’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식품 산업 기반 보유

– 태국은 2019년 기준 세계 11위 식품 수출국으로 세계 식품 수출의 약 2.5%를 차지, 아시아에서 중국(5위)에 이은 2위 식품 수출국가

〈태국의 주요 식품 수출 현황(2019년)〉

#1	#1	#2	#2	#2	#3	#5	#6
카사바 (세계 1위)	참치 캔 (세계 1위)	쌀 (세계 2위)	설탕 (세계 2위)	냉동 닭 (세계 2위)	파인애플 캔 (세계 3위)	냉동새우 (세계 5위)	양념류 (세계 6위)

* 태국 식품 산업규모: 3조 6천억 947억 달러

* 식품 산업 인프라: 식품공장 9,000여 개, 식품연구소 150개, 100만 명 등

○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 태국 식품 관련 수출 성장 및 수출 기회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홈쿠킹 확대, 한류 열풍 지속(인기 드라마) 영향으로 한국 식품(K-food) 인기 증가 (신선과일,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 류 등 수출 활발)

- 한국수입협회는 2018년 7월, 태국식품가공협회(Thai Food Processor's Association)와 교류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식품 외에도 외식 위주 식생활로 가공식품 및 포장기계, 포장재 수요 지속 증가
- 식품 산업은 태국의 '12대 미래산업'과 'BCG 이코노미 모델'의 4대 핵심산업의 하나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 식품과 건강식품**에 연구개발 집중할 계획
 - 제12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17~2021)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과 할랄인증을 적극 지원 예정

□ 관광업

- 외국 관광객은 2018년 3,755만 명, 2019년 3,98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에 해당
 - 태국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약 18%(2019년 기준, 내외국인 관광객 포함)로 2014년 이후 외국 관광객 수는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는 등 태국 경제에 있어 주요 외환 수익원에 해당
 -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서비스 수지 감소 예상

〈태국 외국 관광객 현황〉

(단위: 만 명, 조 bat,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F)	2021년(F)
관광객수	3,559	3,818	3,980	670	900
증감률	9.4	7.3	4.2	-83.2%	34.3
파생수입	1.83	1.88	1.93	0.31	N.A
증감률	12.3	2.7	2.7	-83.6%	N.A

자료: 태국중앙은행(Bank of Thailand), 태국 관광스포츠투부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으로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국내관광진흥책(We Travel Together) 실행
 - 신청자들에 한하여 국내 관광시 숙박비, 비행기 표, 식비 등을 지원
-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BCG 이코노미 모델'의 4대 핵심산업으로 선정
 - 향후 5년 이내, 가시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와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
 - * 메콩 강 주변 관광지 개발, 지역 관광상품 개발, 웰니스 관광 등

□ 유통업

- 유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2020년 3.47조 bat(1,113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4% 예상
 - 그러나 2020년 이커머스를 통한 태국 유통망 매출액은 2,100억 bat(67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태국 유통시장 현황〉

(단위: 십억 бат,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2019년)	2020년 (F)	증감률 (2019~2020년)	2021년 (F)	증감률 (2020~2021년)
유통업 전체	3,262.8	3,368.4	3,516.9	4.4	3,468.4	-1.4	3,760.9	8.4
매장형	3,085.0	3,156.5	3,243.4	2.8	3,135.0	-3.3	3,356.8	7.1
비매장형	177.9	211.9	273.5	29.1	333.4	21.9	404.1	21.2
－ 방문판매	94.9	93.1	93.9	0.9	93.8	-0.1	98.2	4.7
－ 홈쇼핑	11.6	13.5	15.3	13.3	17.2	12.4	18.9	9.9
－ 이커머스	63.2	96.7	155.3	60.6	213.6	37.5	277.2	29.8
－ 기타	8.2	8.5	9.0	5.9	8.9	-1.1	9.7	9.0

주: 인터넷쇼핑에는 모바일 쇼핑 포함

자료: 유로모니터

○ 태국 매장형 오프라인 유통망은 CP All, Central 그룹, The Mall 등 3대 유통 대기업이 장악

－ 온라인 유통망은 라자다, 텐센트, JD 등 중국계 회사가 시장 주도

〈태국 주요 유통망 현황〉

구분	업체명	유형	비고
매장형 유통망		· 편의점: 7-Eleven(11,000개 ↑) · 대형할인매장: Makro	· 전체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79.8%) · 전체 유통망 시장 점유율 1위(9.6%)
		· 슈퍼마켓: Tops Market · 백화점: Centra Plazal, Central World, Robinson 등	· 백화점 부문 시장 점유율 1위(44.9%) · 전체 유통망 시장 점유율 3위(4.8%)
		· 슈퍼마켓: Gourmet Market · 백화점: Emporium, EmQuartier, Siam Paragon	· 백화점 부문 시장 점유율 2위(15.4%)
비매장형 유통망		· 중국 알리바바가 대주주	· 매출액 기준 1위 · 월평균 사이트 방문자 수 기준 업계 2위 (2020년 2분기 기준 3,522만 명)
		· 중국 텐센트 자본의 싱가포르계 플랫폼	· 매출액 기준 2위 · 월평균 사이트 방문자 수 기준 업계 1위 (2020년 2분기 기준 3,522만 명)
		· 중국 징둥닷컴(JD.com)과 Central 그룹의 합작회사	· 2018년 9월 론칭 · 월평균 사이트 방문자 수 기준 업계 3위 (2020년 2분기 기준 294만 명)

자료: Euromonitor, Aseanup

□ 정보통신(ICT) 산업

○ 태국은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국가로 2019년 기준 휴대폰 가입자 1억 2,961만 명(보급률 194.7%), 인터넷 가입자 5,010만 명(보급률 75.3%) 초과

－ 2016년부터 4G LTE 서비스를 제공, AIS(44.0%), True(31.8%), DTAC(21.6%) 등 3개사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시장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기준)

- 태국은 **2020년부터 5G 보급 상용화를 목표로** 2020년 2월 5G 주파수 입찰 실시, 5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5G 위원회 발족'

* 3개 주파수(700MHz, 2600MHz, 26GHz) 입찰에 총 49개의 라이선스 부여, 총 규모 10,004.5억 바트(31.7억 달러)

〈태국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자 추이〉

(단위: 만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F)
모바일	10,294	11,967	12,153	12,499	12,961	13,188
인터넷	3,947	4,387	4,519	4,756	5,010	-
브로드밴드	623	722	821	919	1,011	1,062
보급률(인구)	9.3	10.7	12.1	13.6	14.9	15.6
보급률(가구)	29.1	33.6	38.4	13.6	25.1	24.7

자료: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 '태국 4.0'과 디지털 이코노미(Digital Economy) 정책에 따른 ICT 시장 확대 추세
 - ICT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확장, 해저 케이블 설치 확대, 5G 도입 예정,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개발 등

□ 화장품 산업(아세안 최대 시장)

- 태국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557억 바트(72.7억 달러)으로 아세안 최대 규모**
 - 품목별 시장규모는 스킨케어(39.0%), 헤어케어(14.6%), 색조화장품(12.1%), 덴탈케어(11.4%), 사워용품(9.8%) 등의 순
 - 태국 소비자들은 더운 나라 특성상 자외선 케어 제품의 수요가 꾸준하며, 미백 또는 브라이팅닝 기능에 관심이 높음
 -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화장품 시장규모 축소 전망이나 2021년부터 회복 기대

〈태국 화장품 품목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바트,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증감률(2018~2019년)
화장품 시장	185,595	197,974	211,536	225,731	100.0	6.7
스킨케어	71,110	76,302	82,109	88,088	39.0	7.3
헤어케어	28,299	29,550	31,123	32,962	14.6	5.9
색조화장품	21,661	23,490	25,478	27,407	12.1	7.6
덴탈케어	20,471	21,991	23,615	25,666	11.4	8.7
사워용품	19,396	20,427	21,202	22,020	9.8	3.9
향수류	7,902	8,441	9,012	9,554	4.2	6.0
데오도란트	6,247	6,423	6,648	6,888	3.1	3.6
자외선케어	4,001	4,484	5,082	5,562	2.5	9.4
제모용품	345	351	361	365	0.2	1.2
기타	6,165	6,515	6,906	7,220	3.2	4.5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라. 정책·규제 환경

□ 태국 12대 미래산업 육성정책(태국 4.0의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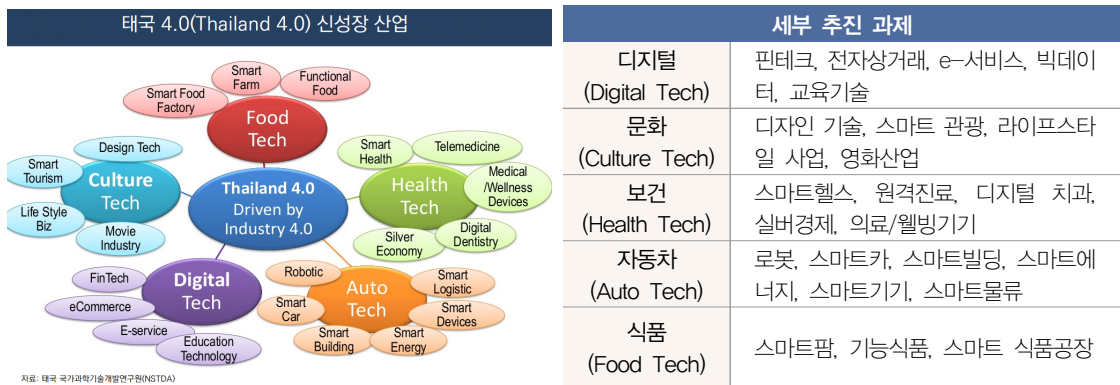
-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 하에 S-커브 정책을 통해 12대 미래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
 -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제조업)과 3차 산업(서비스업) 전반에 ICT를 접목하여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태국이 산업우위에 있는 5개 현존 산업군의 중단기 발전 및 성장 잠재력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7개 신산업의 중장기 육성을 추진

〈태국 12대 미래산업 현황〉

First S-Curve (단기/중기)	① 차세대 자동차	자율운행차, 전기차, 인텔리전트 수송시스템
	② 스마트 전자	스마트 가전, Advanced Creative Design
	③ 고급 의료·웰빙 관광	디지털 의료허브 육성
	④ 농업 및 바이오기술	농업테크(AgriTech),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s)
	⑤ 미래식품	자동가공(Auto Processing), 생산유통이력추적(Traceability)
New S-Curve (장기)	⑥ 디지털	(하드웨어)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컴퓨터서비스) DigiTech, 빅데이터, 영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Intelligent Platform, Auto System (통신) 위성, 디지털 방송
	⑦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바이오매스, 혁신적 에너지(Disruptive Energy)
	⑨ 의료 허브	원격수술(Tele Surgery), 건강 모니터링
	⑩ 항공·물류	스마트 물류, 자동경로차량(AGV)
	⑪ 방산	군용 드론, 군용로봇, 무인선적, 통신시스템
	⑫ 교육	중점 산업 분야 교육자 양성, 자동화/정보시스템 교육
↑		
핵심기술 (기반)	① 바이오 기술	유전자 분자(Gene&Molecular) 기술, 오믹스(Omics) 기술, 유전체공학(Bioinformatics) 등
	② 나노기술	약물수송계(DDS), 막이용(Membrane) 기술, 표면코팅기술 등
	③ 첨단 소재기술	첨단 촉매기술, 물질합성기술, 에너지저장 등
	④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IoT) 기술, 인공지능(AI) 기술 등

자료: 태국투자청(BOI),동부경제회랑사무국(ECCO) 자료 종합

○ 디지털·문화·보건·자동차·식품 등 5대 부문의 스마트화도 병행 추진



자료: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m)(좌), 국가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 자료종합(우)

□ 메콩강 경제권(GMS) 및 태국 거점 경제회랑 개발

메콩강 경제권(GMS) 경제회랑

- 아세안 경계성 강화를 통한 2~3선 도시개발 활성화, 국경무역 및 역내 관광 확대, 역내 경제 통합 가속화 등을 목표로 하는 9개 경제회랑 구축에 참여 중
- 2019년 6월 태국 내각은 5억 달러 규모의 이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에 따른 인프라 펀드에 2억 달러 지원 계획 승인
 - 한국도 2019년 11월 연 1백만 달러의 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발표
 -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ACMECS 프로젝트 펀드 조성건 지연
- 다수의 현지 진출기업이 아세안 통합과 경제회랑 구축을 고려, 아세안-중국-서남아를 연계한 폭넓은 지역생산 네트워크(RPN) 구축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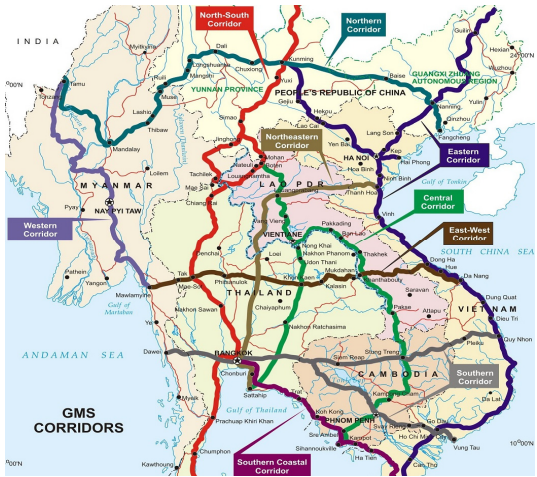
태국 진출 A사 사례

남부경제회랑 활용, 베트남·캄보디아에서 부품 생산 후 태국 제조공장에서 조립, 미얀마 다웨이 항구를 통해 수출 구상

【메콩강 경제권(GMS) 9개 경제회랑 현황】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발전단계〉

1단계 교통벨트(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 2단계 교통무역벨트(국경 간 무역촉진 위한 제도 정비) → 3단계 물류벨트(국경 이외 지역까지 물류망 구축) → 4단계 도시개발벨트(전력·상하수도 등 경제 인프라 구축) → 5단계 경제벨트(민간투자 증진, 국경무역 경제특구 신설)



- 북부경제회랑: 중국 광청-중국 쿤밍-미얀마 타무
- 동부경제회랑: 중국 쿤밍-난닝-베트남 하노이-베트남 카마우
- 중부경제회랑: 라오스 보텐-태국 사따함-캄보디아 시아누크빌
- 동서경제회랑: 미얀마 양곤-태국 목다한-베트남 다낭 (1,320km)
- 남부경제회랑: 베트남 꾸이년·봉따우-캄보디아 프놈펜-태국 방콕-미얀마 다웨이(1,000km)
- 남부해안경제회랑: 태국 방콕-캄보디아 시아누크빌-베트남 남간
- 남북경제회랑: 중국 쿤밍-태국 방콕(1,450 km)
- 북동경제회랑: 베트남 탄호아-태국 방콕-태국 사따함
- 서부경제회랑: 미얀마 타무-미얀마 모울웨인

자료: Stone and Strutt(2009), 현지 언론 종합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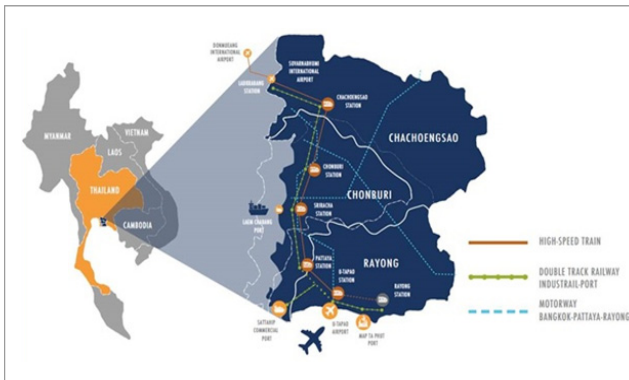
◦ 태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방콕 동남부의 촌부리, 라용, 차츰사오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 2018년 5월 발효된 'EEC 특별법'을 근거로 △ 고속철, 공항, 심해항, 도로 등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2대 미래산업 육성 △ 이노폴리스 등 연구개발단지 조성 △ 관광과 도시개발 △ 교육, 헬스케어, 환경, 전력, 상수도, 공동체 등의 개발 추진

* 3개 지역의 면적은 1만 3,285km²으로 경기도의 약 1.3배

- 2021년까지 동부경제회랑 인프라 개발에 1.7조 바트(499억 달러)을 투자, 관련 프로젝트 발주 계획

* 민간합동투자(PPP)로 추진, 정부 3,000억 바트(12%), 민간 1.4조 바트(82%) 투자



EEC 향후 5년간 투자계획 (최소 499억 달러)

- U-Tapao 국제공항(57억 달러)
- Map Ta Phut 항구(3억 달러)
- Laem Chabang 항구(25억 달러)
- 고속철(45억 달러)
- 관광(57억 달러)
- 제조업(140억 달러)
- 고속도로(10억 달러)
- 신도시/병원(115억 달러)
- 철도 복선화(18억 달러)

자료: EEC사무국

- EEC정책위원회는 2020년 10월 1.18조(478억 달러) 규모의 3개 신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승인
 - 타당성 조사 승인을 받은 신규 프로젝트는 EEC와 지역산업 연결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① 3개 항구 연결(240억 бат), ② 육교건설(9,900бат), ③ 심해항구, 고속도로, 복선철도와 걸프만 및 안다만해 연결(1,680억 бат)로 구성

태국 남부경제회랑(SEC)

- 태국 정부는 2019년 1월 투자금액 1,067.9억 бат(35.4억 달러) 규모의 116개 남부경제회랑(SEC: Southern Economic Corridor) 개발 프로젝트(2019~2022년) 승인
 - 4개의 전략계획에 따라 남부경제회랑(SEC)의 남아시아 관문화 및 남부경제회랑(SEC)과 동부경제회랑(EEC) 연결을 위해 남부 4개주* 철도 복선화, 라농항 개발, 공항, 도로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 * 남부 4개주: 줌폰, 라농, 수라타니, 나콘시타마랏
 - 해상 연결성 증대를 통하여 개발추진 중인 **동부경제회랑(EEC)과 벵골만 협력기구(BIMSTEC)***와의 교류 증진도 기대
 - * 빔스텍(BIMSTEC):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 네팔 등 동남아 및 서남아 7개국 지역협력체
 - (개발현황) SEC와 기타 남부지역 연결 107km 거리의 4차선 도로 건설 공사 중, 줌폰-라농 선 167km 복선철도 2022년 완공목표
 - 태국 정부, SEC 개발 관련 5개의 긴급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2019년 회계예산 4.49억 бат(1,465만 달러) 배정

태국 남부경제회랑(SEC) 개발을 위한 4대 전략 계획	
제1 계획	· 라농 심해항구 업그레이드 및 4개주 공항 업그레이드 → 11개 프로젝트, 503억 бат 소요
제2 계획	· 로열 코스트 관광 지대*의 관광 연결성 확대(온천 및 고속도로 건설/확장 포함) * 팻차부리, 뿌라주압키리칸, 줌폰, 라농과 안다만 해 인근 → 33개 프로젝트, 396억 бат 소요
제3 계획	· 바이오 기반 산업 및 가공농산물 산업 개발 - 통합 약초 센터, 수상생물 연구센터, 고무 혁신제품 시범 지구 구축 → 33개 프로젝트 73.7억 бат 소요
제4 계획	· 천연자원 보존, 노인센터(줌폰), 통신 인프라 개발 → 39개 프로젝트 96억 бат 소요

자료: 현지 언론 종합

□ 디지털 이코노미(Digital Economy) 정책

- 태국 정부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2014년 11월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
 - 디지털 이코노미 5대 개선 분야는 △ 하드 인프라 △ 소프트 인프라 △ 서비스 인프라 △ 디지털 경제 촉진 △ 디지털 사회 등

태국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 정책	
디지털 이코노미 마스터플랜 (2016~2035)	• 1단계(1.5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토대(환경) 구축 • 2단계(5년): 디지털 개발 계획에 국가의 전 분야 편입 • 3단계(10년):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태일랜드'로의 전환 • 4단계(10~20년): 글로벌 디지털 혁신 국가 진입
넷프라차랏	• 2017년에 추진 시작된 디지털경제사회부 액션 플랜 • 1차 전국 2만 4,700개 마을에 와이파이 핫스팟 설치(2018년 완료) – 2차 1만 5,732개 마을에 와이파이 설치(2020년 완료 예상) – 전국 2,000개의 디지털 커뮤니티센터 설치 • 지방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디지털 파크	• EEC 구역인 촌부리주 시라차 소재 • 주요 추진기관: 디지털경제진흥원(DEPA), 국영통신사 CAT Telecom • 개발 방식: 민관합작투자(PPP, 정부 토지제공, 민간 시공)를 통해 4개 건물 신축 예정

자료: 태국 투자청, 현지 언론 종합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태국 정부는 산업, 기술, 지역, 가치 기반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법인세 감면, 기계 및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등

〈태국 외국인투자 정책 중점지원 분야〉

산업기반(Activity-based) 인센티브 • 바이오(Bio) 산업 • 창조 및 디지털(Creative & Digital) 산업 •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및 서비스 • 첨단 제조업 • 기초 및 지원 산업	기술기반(Technology-based) 인센티브 • 바이오 기술 • 나노 기술 • 첨단소재 기술 • 디지털 기술
지역기반(Area-based) 인센티브 • 동부경제회랑(EEC) (3개주) • 경제개발특구(SEZ) (10개주) • 남부국경지역 (4개주, 4개군) • 20개 저소득 지역(20개주) • 산업공단 • 과학기술파크(식품 이노폴리스, 과학파크 등)	가치기반(Merit-based) 인센티브 • R&D • 교육/조사기관, 기술 및 HRD 기금 지원 • 지적재산권 비용(IP licensing fee) • 첨단기술 훈련 • 지역 공급업체 개발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자료: 태국투자청

- 태국 정부는 태국으로 대규모 생산기지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실시하는 '타일랜드 플러스 패키지(Thailand Plus Package)' 정책을 실시

〈타일랜드 플러스 패키지 주요 골자〉

인센티브	5년간 법인세 추가 50% 감면
투자규모	2020년 중 5억 바트 이상 또는 2021년 중 10억 바트 이상(투자 및 운영자금 제외)
대상 활동(Activities)	태국 투자청의 투자촉진활동(12대 미래산업일 필요는 없음)
신청기한	2020년 12월(이후 연장 가능성도 있음)
조건	2022년 6월까지 투자증빙 제출

자료: 태국 투자청

□ 지역무역협정 체결 확대 추진

-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독자적으로 13개 FTA 지역무역협정 체결
 -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7개국과 6개 FTA 체결
 - 개별국가 차원에서 일본, 인도, 호주 등 13개국과 7개 양자 FTA 체결
- *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는 아세안회원국 및 독자 FTA로 이중 체결

〈태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서명/발효시기	특징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1992.1.28. 서명 2003.1.1. 발효	2010년부터 태국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단, 커피, 감자, 코코넛, Cut Flower 등 4개 민감 품목은 4% 저율 관세 부과)
한국-아세안 FTA	2006.8.24. 서명 2007.6.1. 발효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 태국은 2009년 2월 27일 서명, 2010년 1월 1일 발효
중국-아세안 FTA	2004.11.29. 서명 2005.7.20. 발효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 파트너 협정	2008.4.11. 서명 2009.6.1. 발효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86.17% 관세 면제
인도-아세안 FTA	2009.8.13. 서명 2010.1.1. 발효	2016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관세 면제
호주-뉴질랜드-아세안 FTA	2009.2.27. 서명 2010.3.12. 발효	태국 202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홍콩-아세안 FTA	2017.11.12. 서명 2019.1.1. 발효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
인도-태국 FTA	2003.10.9. 서명 2004.9.1. 발효	과일, 수산물, 보석 등 관세 면제
호주-태국 FTA	2004.7.5. 서명 2005.1.1. 발효	호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뉴질랜드-태국 경제 파트너십 협정	2005.4.19. 서명 2005.6.1. 발효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일본-태국 경제 파트너십 협정 (JTEPA)	2007.4.3. 서명 2007.11.1. 발효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또는 인하
페루-태국 FTA	2009.11.13. 서명 2011.12.31. 발효	전체 상품의 70%를 커버하는 5,962품목에 대한 양국 수입관세 면제
칠레-태국 FTA	2013.10.4. 서명 2015.11.5. 발효	칠레와 태국 모두 전체 상품의 90%를 즉시 관세 인하 품목으로 설정
방글라데시 7개국 협력기구(BIMSTEC)와 기술 및 경제협력 협정	2007.8.1. 서명 2012.7.1. 발효 (Fast Track) 2013.7.1. 발효 (Normal Track)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등 방글라데시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

자료: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 태국 정부는 메가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 중, 2020년 중 연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나 9월부터 JSCIB 주도로 가입여부 재조사 시행 중
- 협상 중이었던 양자간 FTA(**파키스탄, 터키, 스리랑카** 등)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척이 없는 상황
- 무역 협상국은 **EU**와 협상 재개를 위한 내부 조사를 마치고 2020년 9월 공청회 개최

2. 시장 분석

-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인도차이나의 중심 국가
- 아세안 최대 제조업 국가로 일본 등 외투기업의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
- 부품소재와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가공무역 구조
- 우리나라는 2020년 상반기 기준 태국의 6위 수입 대상국, 11위 투자국가로 '태국4.0' 정책과 연계한 양국 경험의제 발굴과 협력 필요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 시장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제2위의 경제대국

* 2019년 기준 GDP(단위 US\$/IMF): 인도네시아 1,12조, 태국 5,436억, 필리핀 3,768억, 말레이시아 3,647억, 베트남 3,295억)

- 인도차이나 반도의 뱃(Baht)화 경제권 주도

–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의 무역 거래 시 태국 통화인 뱃화로 결제, 베트남도 뱃화 결제를 인정

- 메콩강 경제권(GMS) 및 메콩강 유역 및 메콩지역 경제협력체(ACMECS) 중심 국가

□ 아세안 최대 제조업 국가로 1, 2, 3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전자 생산 및 수출 허브로 폭넓고 깊은 제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GVC) 구축
- 2019년 기준 약 4,000만 명 규모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 쌀·새우·고무 등의 세계적인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국가

〈태국 주요 제조업 위상(2019년 기준)〉

					
자동차 생산 세계 9위	에어컨 수출 세계 2위	HDD 수출 세계 7위	타이어 수출 세계 3위	냉장고 수출 세계 7위	세탁기 수출 세계 2위

자료: Trade Map

□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태국 4.0' 정책 추진

- 경제 전반에 ICT 기술 적용, 미래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스마트시티), 인적자원 개발, 스타트업 육성 추진

□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

- 무역 의존도가 100을 상회하여 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부품소재 수입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요 특징

* 2019년 무역 의존도(교역액/GDP, WB): 110%

□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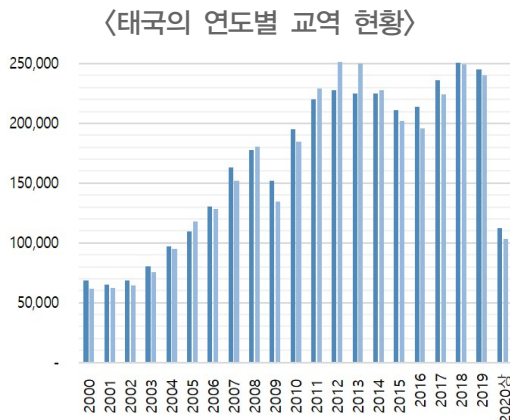
- 태국은 한류의 인기와 성장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K-Drama와 K-Pop 인기 지속
-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콘텐츠, 게임 등 한류 수혜상품의 진출 증가
 - 콘텐츠 한류(K-Culture)에서 한국식 생활(K-Lifestyle)로 확산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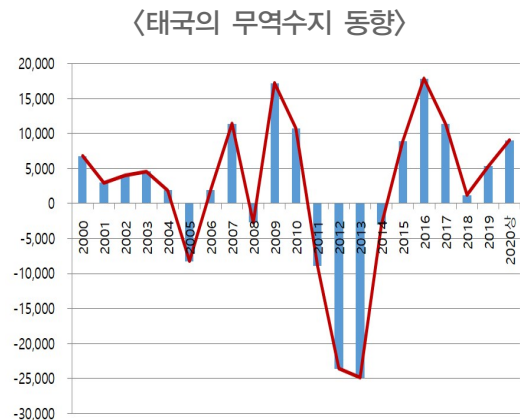
나. 수출입

□ 수출입 전망

- 2020년 태국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예상 수출성장률 -10.2%, 수입성장률 -15.4%, 무역수지는 흑자 전망(NES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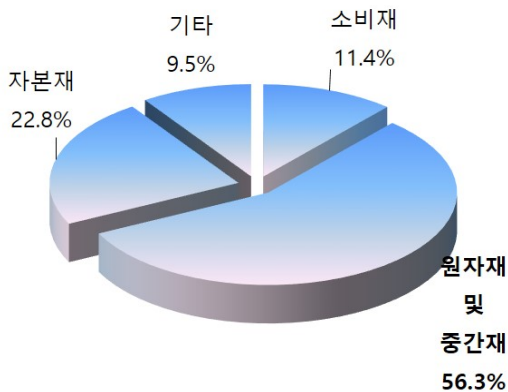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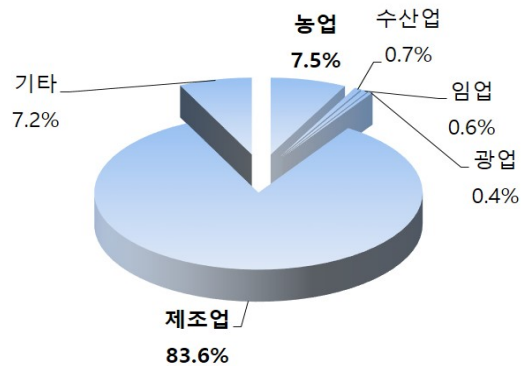
□ 용도·산업별 수출입 동향

- 태국의 용도별 수입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원자재 및 중간재(56.3%)**, **자본재(22.8%)**, **소비재(11.4%)**, **기타(9.5%)**로 구성
 - － 원부자재 부문은 비농업 공산품(36.4%), 연료(14.0%), 농수산물(4.6%), 광물(1.2%) 등의 순
- 수출은 산업별로 제조업(83.6%), 농업(7.5%), 수산업(0.7%), 임업(0.6%), 광업(0.4%) 등으로 구성
 - － 제조업 부문은 품목별 전자(14.4%), 농수산물(13.4%), 자동차(11.9%), 기계 및 장비(7.6%), 전기기기(5.9%), 석유화학제품(4.9%)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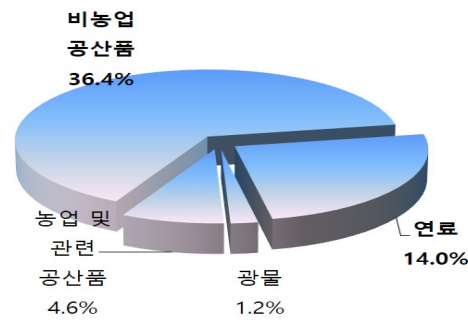
〈용도별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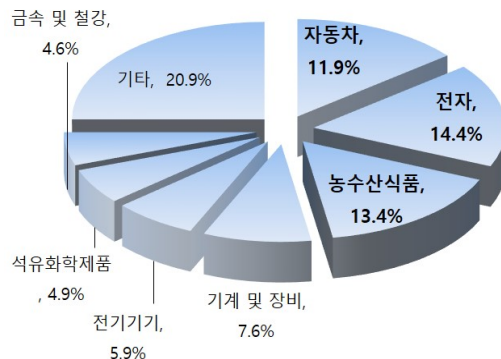
〈산업별 수출 현황〉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현황〉



〈제조업 주요 수출품목 현황〉



자료: 태국 중앙은행(2020년 상반기 수출입통계 기준)

□ 국별·품목별 수입 동향

- (국가별) 태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중국이 2014년부터 일본에 앞서 1위 자리를 차지
 - － 한국은 2017년 및 2018년 6위, 2019년 5위, 2020년 상반기 6위 수입 대상국 기록

〈태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US\$백만, %)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계	224,576	14.7	249,541	11.1	239,980	-3.8	103,515	-14.2
1 중국	44,734	5.9	50,167	12.1	50,980	1.6	23,956	-1.8
2 일본	32,390	4.9	35,440	9.4	33,641	-5.1	13,752	-18.3
3 미국	15,023	23.9	15,055	0.2	17,596	16.9	9,217	-4.2
4 말레이시아	11,781	7.5	13,308	13.0	13,081	-1.7	5,004	-28.2
5 대만	8,230	14.7	8,680	5.5	8,129	-6.4	3,925	-4.7
6 한국	8,084	10.5	8,924	10.4	8,740	-2.1	3,707	-17.7
7 싱가포르	7,996	22.1	7,724	-3.4	7,756	0.4	3,687	4.0
8 인도네시아	7,410	15.5	7,996	7.9	7,341	-8.2	2,837	-23.5
9 UAE	7,677	23.9	10,475	36.4	7,538	-28.0	2,762	-38.6
10 독일	6,140	4.0	6,798	10.7	6,358	-6.5	2,642	-16.6

자료: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역청유, 전자집적회로(IC),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천연가스, 금, 정제유, 컴퓨터 등의 순
- 태국은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며, IC,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소재를 주로 수입
- 금은 보석가공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

〈태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US\$백만, %)

연 번	HS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계	224,576	12.8	249,541	11.1	239,980	-3.8	103,515	-14.2
1	2709	원유 및 역청유	19,515	21.9	27,029	10.8	22,217	-17.8	9,443	-22.4
2	8542	전자집적회로	11,267	15.9	11,874	5.4	11,406	-3.9	5,775	2.8
3	8517	통신기기	7,690	19.9	7,830	1.8	6,942	-11.3	3,157	-4.9
4	8708	자동차부품	6,290	6.3	6,926	10.1	6,785	-2.0	2,483	-27.2
5	2711	천연가스	3,864	16.2	5,084	31.6	5,617	10.5	2,255	-22.1
6	7108	금	11,162	46.9	11,416	2.3	7,038	-38.4	2,168	-31.9
7	2710	정제유	4,355	17.9	5,342	22.7	6,214	16.3	1,781	-39.6
8	8471	컴퓨터	3,731	16.2	4,392	17.7	4,088	-6.9	1,500	-32.2
9	8523	음향저장장치	2,320	15.3	2,754	18.7	2,654	-3.6	1,432	21.1
10	8710	전차와 장갑차량	221	77.9	197	-10.9	157	-20.1	1,364	6,195.2

자료: Global Trade Atlas

□ 무역장벽

- 태국 정부는 21개국에 대하여 53건의 수입규제(반덤핑 규제 53건, 세이프가드 규제 없음) 조치를 시행중이며, 10건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 진행 중(2019년 6월 기준)
 - － 국가별 반덤핑 조치는 중국(15건), 한국(8건), 대만(6건), 베트남(5건), 일본(2건) 등
- (대한 수입규제)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2020년 6월 기준 총 8건으로 반덤핑 관세 규제 8건 중 3건은 조사 중
 -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열연강판, 강관 및 튜브 등 철강에 대해 규제
- (비관세장벽) 통관, 인증 애로 발생

태국 비관세 장벽 사례	
인증	－ 의료기기의 경우 태국식약청(FDA) 인증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3개월~3년) － 무선 통신장비의 태국 수입 시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태국 공무원이 한국 공장으로 실사를 나가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움
통관	－ 태국 세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로 인한 수입물품 통관 지연 * 원산지 증명서(AK Form)의 경우 세관원 담당자별 상이한 심사 기준 적용 및 까다로운 심사 기준 적용으로 통관 지연 발생 사례가 빈번히 발생(통관에 필요한 중요 요소가 아닌 띄어쓰기, 마침표(.)와 같은 부호 누락 등으로 반례시키는 경우가 대다수) ** 연결 원산지 증명서 수기 표시분 비인정 사례 또한 발생

□ 수출 성공사례

(성공사례) ㈜루소, 방콕무역관 서비스 활용 태국 시장 진출 성공

- 루소는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를 생산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복합 소재(펠렛) 기업으로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0년 3월 방콕무역관 사업파트너연결지원서비스 신청
- 태국 바이어들은 품질과 수입 절차상 어려움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보다 일반 ABS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나, 방콕무역관은 루소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친환경적 특성 홍보에 주력하여 관련 분야 유력 바이어 발굴 성사
- 루소는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가격 경쟁력, 대용량 배합공정을 통한 균일한 품질유지 등 자사 제품 경쟁력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바이어 신뢰 확보
- 이후 샘플 송부, 품질 테스트, 가격협상 등 5개월에 걸친 수출 논의과정 끝에 2020년 9월 태국 시장 진출 성공

다. 투자 진출

□ 태국 외국인투자(FDI) 동향

- 2020년 상반기 외국인투자는 승인 건수 기준 535건, 1,607억 바트(50.8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2%, 41.5% 증가
 - － 중국의 대 태국 투자는 354억 바트(11.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으며,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 22.0%로 1위를 기록

- 일본의 투자는 344억 бат(10.9억 달러)으로 2위, 대만의 투자는 134억 бат(4.3억 달러)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7%, 158.4% 증가하며, 2위와 3위 기록

〈태국의 연도별 주요 외국인투자 동향(승인 기준)〉

(단위: 백만 бат, 건)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국가	건수	투자액	국가	건수	투자액	국가	건수	투자액
합계	914	255,605	합계	876	281,873	합계	535	160,664
일본	315	93,675	일본	217	88,067	중국	96	35,358
싱가포르	108	37,650	중국	160	73,810	일본	119	34,361
중국	97	32,811	대만	47	28,382	대만	46	13,439
말레이시아	30	25,811	홍콩	46	16,771	싱가포르	88	11,868
네덜란드	50	20,175	싱가포르	95	15,313	홍콩	30	10,062
미국	38	18,257	미국	26	14,578	미국	19	8,079
대만	57	7,505	스위스	18	13,286	네덜란드	46	2,783
모리셔스	4	7,086	인도네시아	4	8,602	오스트리아	2	2,502
스위스	13	4,909	네덜란드	60	8,205	인도네시아	4	2,017
영국	27	4,194	프랑스	15	7,435	영국	12	1,519
한국(14)	27	2,230	한국(14)	31	3,144	한국(12)	8	821

주: 외국인 투자지분 10% 이상, 대미환율 (2018년) 32.31, (2019년) 31.05, (2020년 상반기) 31.62

자료: 태국투자청(BOI)

- 2020년 상반기 한국의 투자는 8건, 8.2억 бат(2,530만 달러)으로 건수와 투자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투자비중 0.5%로 12위 투자국에 해당
- 2020년 상반기 산업별 외국인투자는 총 투자 승인 금액의 30.0%가 서비스 및 공공시설에 투자되었고, 이어서 금속·기계·운송장비 26.9%, 전기전자 23.5%, 광물·세라믹·기초금속 11.7%의 순으로 집계됨
- 2020년 상반기 기준 총 외국인투자 승인 금액의 59.2%가 12대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전기 전자, 자동차, 관광 순으로 투자가 활발
- 동부경제회랑(EEC) 내 외국인투자는 2020년 상반기 중 총 외국인투자 승인금액의 63.1%에 해당하는 1,014억 бат(32억 달러) 기록
 - EEC 3개주 중 촌부리주 투자가 가장 높고, 이어서 라용, 차츰사오주 순

□ 투자진출 진입장벽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규제
 - 태국 정부는 외국인사업법 제8조에 따라 3개 업종군으로 나누어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지분율을 제한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규제 업종〉

구분	지분 제한 내용	분야	
Category A (List 1)	외국인 50% 이상 소유 금지	신문방송, 농업, 축산, 임업, 어업, 토지 거래 등	9개
Category B (List 2)	외국인 50% 미만 소유 * 단 내각 동의하에 60%(또는 75%)까지 가능	군수물자 제조, 운송, 양장, 도자기 생산, 설탕 제조, 염전, 광산업 등 국가 안보/예술/수공예/자원/환경 분야 보호를 위하여 금지	13개
Category C (List 3)	외국인 50% 미만 소유 * 단 외국인 사업허가(FBL) 획득 또는 특정 산업의 경우 예외조건 충족 시 100% 소유 가능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브로커 및 대리점업, 합판제조, 경매, 도소매, 광고, 호텔, 관광, 식음료 판매업 등 태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 관련 업종	21개

자료: 외국인투자법

- 한국계 서비스업 진출 제한, 비자 및 노동허가 등에서 애로 발생

〈태국 현지 투자 애로 사례〉

높은 설립기준	- 외국계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은 200억 바트(약 7,800억 원)으로 과다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태국 진출에 애로 * 1997년 외환위기로 3개 은행(산은, 외환, 하나) 철수 이후 영업 허가 획득 사례 전무, 2013년 산업은행이 사무소 형태로 재개설
인프라 부족	- 한국계 은행 부재로 우리 진출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 - 태국 현지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법률, 회계 등 현지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나 현지진출에 제한
비자 및 노동 허가 애로	- 외국인 1명 고용 시 자본금 2백만 바트(약 7,800만 원) 납입, 태국인 4명 고용 의무 - 체류비자 및 노동허가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

- 태국 정부는 2018년 2월 1일부 ‘스마트 비자’ 제도 도입
 - ‘12대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투자자, 기업가들에게 최대 4년간 유효 비자 발급·노동허가 취득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
 - 동 비자제도 시행 이후로 아직까지 수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투자 진출 성공사례

(성공사례)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는 2020년 4월 태국 현지 여신전문금융회사 ‘제이 핀테크(J Fintech)’ 의결권 지분 50.99%를 248억 원 (6억 5천만 바트)에 인수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함
-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국내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규 인허가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임
- 2011년에 설립된 제이 핀테크는 임직원 130여 명에 18개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총자산 1,516억 원, 당기순이익 26억 원을 기록한 중견 여신전문금융회사임
- 태국 소비자 금융 시장은 2018년 기준 약 4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 5년 평균 8%에 이르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의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신용사업이 용이함
- 자회사 편입 후, 본사의 자금보증 등을 통한 자금 조달로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는 등 우량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오랜 준비 작업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전속 시장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현지회사 인수 전략 추진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한-태국 수출입 개관

-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10년 1월 한-아세안 FTA 발효 효과로 2011년 138.7억 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대흥수, 정정불안, 쿠데타 등의 악재**로 2016년까지 5년 연속 감소세
 - 2017년부터 교역 환경 개선으로 증가세로 전환, 2018년에는 사상 최고치 달성
 - 한-태 교역은 2019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며, 태국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제 13위 수출, 21위 수입, 16위 교역, 22위 무역흑자 대상국

〈한-태국 수출입 동향〉

(단위: US\$백만,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수출	금액	6,482	7,467	8,505	7,804	3,181
	증감	1.9	15.2	13.9	-8.2	-19.7
수입	금액	4,563	5,205	5,582	5,318	2,586
	증감	-6.0	14.1	7.3	-4.7	-6.4
무역수지		1,919	2,262	2,923	2,486	595
교역액	금액	11,044	12,672	14,087	13,122	5,766
	증감	-1.5	14.7	11.2	-6.9	-14.2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KITA)

□ 주요 수출품목 현황

- 우리나라의 대(對) 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항공기 및 부품, 합성 고무, 화장품 및 비누치약** 순
 - 태국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이 주요 수출품목
 -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도 활발한 상황

〈한국의 대 태국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US\$백만, %)

순 위	MTI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총계			8,505	13.9	7,805	-8.2	3,181	-6.4	100.0
1	613	철강판	1,365	15.0	1,354	-0.8	486	-58.7	15.3
2	831	반도체	572	-10.9	506	-11.7	265	8.6	8.3
3	214	합성수지	478	4.2	384	-19.7	168	-16.2	5.3
4	133	석유제품	378	72.7	327	-13.5	116	-40.8	3.6
5	747	항공기 및 부품	55	-22.1	159	187.7	96	-73.7	3.0
6	215	합성고무	207	-14.8	170	-17.9	73	-64.9	2.3
7	227	화장품 및 비누치약	166	8.9	141	-15.3	71	-12.1	2.2
8	228	정밀화학원료	139	36.8	131	-6.4	69	3.7	2.2
9	834	기구부품	128	-26.7	103	-19.2	66	23.6	2.1
10	621	알루미늄	156	-14.1	158	1.0	66	-11.6	2.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경합도지수와 경쟁 동향】

- 수출경합도지수(ESI)*에 의한 2019년 태국 시장 내 한국의 주요 경쟁국은 **일본(51.9), 중국(45.5), 대만(44.7), 독일(39.1), 말레이시아(38.7), 미국(37.9)** 순임

*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 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ESI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두 나라의 수출은 경쟁 상태에 있음을 의미

- 우리나라의 대(對) 태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이 국가들과 주로 경쟁 중임

〈태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 및 경쟁 동향(2020년 상반기)〉

(단위: US\$백만, %)

품목명	HS 코드	수입액	대 한국 수입			주요 경쟁 국가
			금액	순위	점유율	
전기기기 및 부분품	85	20,504	777	7	3.8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광물성 연료	27	15,187	182	18	1.2	UAE, 사우디, 미국, 미얀마
기계류 및 부분품	84	12,658	323	7	2.6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차량	87	5,288	63	11	1.2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철강	72	4,703	591	3	12.6	일본, 중국, 대만
플라스틱	39	4,360	307	5	7.0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귀금속	71	3,523	56	13	1.6	홍콩, 싱가포르, 인도, 스위스
철강제품(유일 증가)	73	2,913	108	7	4.8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의료기기	90	2,575	51	10	2.0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유기 화합품	29	2,160	145	5	6.7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화학공업 생산품	38	2,041	44	10	2.1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독일
구리와 그 제품	74	1,967	81	10	4.1	일본, 중국, 칠레, 라오스, 필리핀
알루미늄	76	1,644	76	7	4.6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의약품	30	1,276	36	15	2.9	독일, 미국, 프랑스, 인도, 일본
화장품	33	863	60	7	7.0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출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이도, 방콕무역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태국 식품시장 진출 성공

- 떡볶이소스를 생산하는 ㈜이도는 태국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부터 방콕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가입
- 방콕무역관은 동제품의 태국 진출을 위해서는 소매 위주의 일반 대형마트 보다 도소매를 겸하는 유통망이 적합하다고 판단, 대형마트 S사와 네트워크 구축 노력
- 한편, 제품 패키징 및 라벨링에 있어서도 태국 시장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이도와 방콕무역관이 협의를 통해 개선 추진
- ㈜이도는 현지에 장기체류 직원을 파견하고 방콕무역관과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협력한 결과 지사화 3년차인 2020년 떡볶이소스 제품으로 태국 시장 진출 성공

(실패사례) 관심 바이어가 존재함에도 태국식약청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수출 난항

- A사는 KOTRA 전시회를 통해 만난 바이어와 제품 수출 협의 후 태국 FDA 인증 진행. 그러나 인증에 과도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거듭되는 추가 서류 요구에 방콕무역관을 통해 정확한 인증 절차문의,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이 태국 내 식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식품군(Novel Food)에 해당하는 바 까다로운 등록 기준으로 수출 난망
- 태국 내 신종 식품군 수입 희망 시 신종 식품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며, 신종 식품에 해당할 경우 식품

안정성 검사를 통과해야 함

- 식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서류로 수년간 복용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 논문 등의 제출이 필요(실질적으로 구비 어려움)
- 또한 신종 식품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 시, 외부 시험기관에 추가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태국식약청의 인증절차에는 약 5개월이 소요
 - 제품이 우수하고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더라도 태국 내 인증요건 미 충족시 수출이 좌절될 수 있는 바 사전에 인증 필요 여부 및 요건 확인 필요

나. 투자

□ 태국 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대(對) 태국 누적 투자 금액은 2019년 기준 27.8억 달러이며, 2019년 단일 연도 기준 태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39위, 아세안 국가 중 8번째 투자 대상국
- 대형 제조업, 은행·유통, 인프라 등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베트남(4위), 싱가포르(6위), 인도네시아(15위), 미얀마(25위), 말레이시아(28위), 캄보디아(30위), 필리핀(32위)보다 낮은 상황

〈한국 대(對) 태국 투자 현황〉

(단위: US\$백만,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투자액 계(누적)	3,511	1,179	3,561	4,968	2,776
2013년	251	69	281	324	150
2014년	208	52	131	259	182
2015년	164	44	178	196	109
2016년	192	75	111	253	112
2017년	229	63	124	272	107
2018년	191	51	112	235	98
2019년	213	70	100	256	93
2020년 상반기	77	22	57	87	42

주: 누적은 1980년~2020년 상반기 합산 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현지 진출 현황

- 태국 진출 우리 기업 수는 400여 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루 진출
 - 진출 기업 수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투자 대상국
- 제조업은 전자,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위주로 진출
 - 삼성전자·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춘부리, 라용 주의 산업단지에 밀집
 -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철강 가공 공장 운영
 - 이레, 한온 등 자동차부품 업체는 GM 협력업체로 진출

○ 유통*과 프랜차이즈 및 서비스 부문 진출도 최근 증가세

*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이 현지 합작을 통해 진출

〈업종별 진출 기업 현황〉

업종	기업 수	대표 기업
제조업	194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행성전기 (철강) 포스코(타이녹스, CGL, TCS, TBPC), 동부제철, 동국제강 (금속) 풍산금속 (자동차 부품) 네덱, 한온
도·소매	50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상사,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설화수, 에뛰드, 라네즈,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미샤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더비빔밥, 설빙, 교촌, 본촌, 투다리 (지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서비스업	45	(IT) 라인플러스, 비트컴퓨터, NHN (광고) 제일기획 (엔터테인먼트) 한태교류센터, SM트루
운수 및 창고업	29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물류) CJ대한통운, 범한판토스 (여행사) 하나투어
건설, 엔지니어링	10	두산중공업, GS건설,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BJC중공업
금융	3	삼성생명, 산업은행, KTB증권
기타	29	(공공기관) KOTRA, 한국관광공사, aT, 한국산업인력공단 (언론) KBS, 연합뉴스
합계	360	-

자료: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터리, 방콕무역관 보유DB

□ 투자 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아모레 퍼시픽 태국법인

- 아모레퍼시픽 태국 법인은 2004년 합작법인으로 태국 화장품 시장에 초기 진출한 뒤 2012년 단독 법인으로 전환
- 진출 초기부터 현지시장 및 한류문화에 친숙한 한류스타(송혜교 등)를 모델로 기용하여 마케팅에 적극 활용 → **유명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프리미엄 브랜드인 '라네즈'는 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사용이 활발한 SNS '라인(LINE)' 태국 공식계정을 개설한 이후 다양한 프로모션 및 브랜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친구추가시 라인 스티커를 주는 등 타겟 고객층인 젊은 여성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
- 하이엔드 브랜드인 '설화수'는 소수의 백화점 매장을 통해 하이소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화 전략을 고수하고, 태국 피부과 의사들로부터도 추천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 **고급화 전략 유지를 통한 고소득층 공략**
- 2020년 3~5월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록다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장 임시폐쇄로 인한 매출하락을 라자다 공식 브랜드 몰인 라즈몰(LazMall), 이테일러몰(백화점 등의 온라인 계정), SNS 라이브 스트리밍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판매가 대폭 증가, 오프라인 매출 타격을 상쇄 → **다수의 이커머스 유통망을 통한 디지털 채널 접근으로 코로나 시대의 오프라인 매출 감소에 대응**

(실패사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사기에 조심 요망

- A사는 태국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미끼로 왕족과의 네트워킹을 강조한 브로커 요청으로 세부 정보에 대한 검토 없이 선수금 송금했으나 프로젝트가 허위로 발각
- 현지 은행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보증서가 가짜인 경우도 있으므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처와 프로젝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수
- 프로젝트 참여 시 성급한 계약체결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프로젝트 정보 수집 및 진위 확인 필수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태 제2차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양국의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태 경협위 개최를 추진 중으로, 제 2차 한-태 경협위 추진 가능성 보유
- 제1차 회의는 2016년 3월 22일 쏘낀 태국 경제부총리 방한, 개최

□ 4차 산업 협력 강화

- 양국 4차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9월 한국 정상외 태국 방문을 계기로 정부간 MOU 체결
- 체결주체: (한)산업통상자원부, (태)산업부
- 협력분야: 로봇, 바이오, 스마트 전자, 차세대 자동차 등 4차 산업 분야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수행 및 인적·기술적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태국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 스마트시티 협력

-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9월 정부 및 기관 간 2건의 MOU를 체결
- 체결주체(정부): (한)국토교통부, (태)디지털경제사회부
- 체결주체(기관):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태)디지털경제진흥원
- 태국은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목표로 향후 2022년까지 77개 스마트시티 조성에 착수할 예정
- 현재 7개* 스마트시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1년 39개 스마트시티 조성 예정인 바 관련 민간협력 확대 필요
- * 7개 시범도시: 푸켓, 치앙마이, 콘캔, 방콕, 촌부리, 라용, 차츰사오

□ 동부경제회랑(EEC) 투자진출 협력

- 양국은 4차 산업 협력 강화 및 투자 증진을 위해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EEC 진출 협력 MOU 체결

- 체결주체: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태)동부경제회랑사무국
- 협의내용: 4차 산업 관련 한국 기업 EEC 진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 태국 정부는 한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EEC내 특별구역 배정 검토 중이며, 양국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 협력 포럼 개최 추진 예정

□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 양국은 공통 관심사 중 하나인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해 2019년 9월 관련 기관 간 MOU 체결
 - 체결주체: (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업진흥원, (태)Innospace*
 - * 2019년 태국 산업부 주도로 구성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투자 기업
- 양국 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반 조성 추진
 - 스타트업 정보공유 행사 개최, 양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티칭 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시행 예정

□ 한국-태국 간 체결/논의된 산업별 경험의제 확대 발전

- 양국의 정부, 지자체, 기관, 기업 간에 체결한 다양한 분야 의제 활용, 산업협력 강화 노력

〈한국-태국 주요 분야 MOU 체결 현황〉

	문서명	체결주체(한-태국 순)
1	물 관리 협력 MOU	환경부-국가수자원청
2	한국어 교육 협력 MOU	교육부-교육부
3	철도협력 MOU(갱신)	국토교통부-교통부
4	4차 산업혁명 MOU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5	스마트 시티 협력 MOU	국토교통부-디지털경제사회부
6	혁신과 스타트업 개발협력에 관한 MOU	KOTRA/창진원-Innospace(3자)
7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증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육성 및 국제디지털경제에 관한 MOU	KOTRA-디지털경제진흥원(DEPA)
8	전기차 산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	한국전기차협회-태국전기차협회
9	한국무역보험공사-태국 PTT 글로벌 케미컬간 MOU	한국무역보험공사-태국 PTT 글로벌 케미컬
10	정보통신기술개발 MOU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11	에너지 기술 협력 MOU	한기평-태국과학연구혁신기구
12	아세안 문화 협력에 관한 MOU	아세안문화원-아세안문화센터
13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및 연구 협력 MOU	한국남동발전 등-알라 라차팻 대
14	드라마 합작 프로젝트 MOU	SBS콘텐츠허브-모노그룹
15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개발 협력 MOU	(주)피앤이솔루션-V.C.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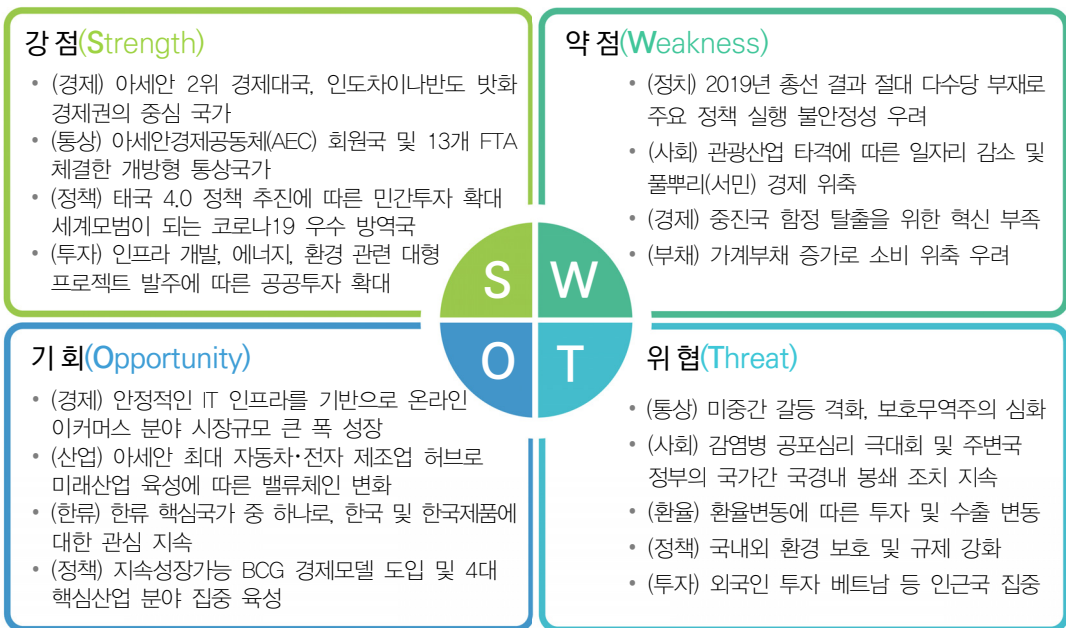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종합

III 진출전략

정부의 산업정책, 시장환경 변화를 감안한 태국 수입시장 진출 확대 및 경제특구 개발, 스마트시티 등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 추진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태국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이커머스 시장 트렌드 파악 • 정부 통상관련 이슈 숙지를 통한 사전 준비
ST 전략 (강점 활용)	• 포스트코로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유망상품 발굴 •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한류 수혜품목 경쟁력 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글로벌 공급망(GVC)에 내재된 상호 의존성 분석 •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GVC 진입 노력 경주
WT 전략 (위험 대응)	• 정부 정책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모색 • 환경 이슈 부각에 따른 신시장 공략

진출전략
변화에 발맞춘 마케팅 전략 수립
한류 콘텐츠 활용 퍼플옵션 공략
아세안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확대
새로운 경제정책 속 진출 기회 포착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코로나 뉴노멀 태국 온라인/이커머스 시장 진출 박차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1년 태국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88.5억 달러(2,772억 บาท)로 전년 대비 30% 증가 예상
* 2024년에는 156억 달러(4,942억 บาท) 수준으로 증가 예상(2020~2024년 연평균 25% 이상 성장)
-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신발(16%), 가전(9%), 식음료(5%) 등 주력 수출품이고 뷰타·퍼스널케어의 경우 점유율은 1% 수준이나, 5년 전보다 판매금액이 4.3배 증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대형 오프라인 물이 주도하던 태국 유통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이커머스로 무게중심 급속히 이동
 - 2021년 태국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88.5억 달러(2,772억 บาท)로, 전년 대비 30% 증가 예상
* 2024년 156억 달러(4,942억 บาท)로, 2020~2024년 연평균 25% 이상 성장 전망(자료: 유로모니터 / 2019년: 50억 달러)
 - 태국 시장 1위인 라자다는 올해 35% 매출 증가 예상
- 태국 이커머스 채널은 △ 라자다, 쇼피, JD센트럴(JD Central) 등 이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47% △ 페이스북, 라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38% △ 소매 유통망의 온라인 유통채널에 해당하는 이테일러(E-tailer) 15%(프라이스자(Priceza), 2019년 기준)
-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신발(7.9억 달러, 16%), 가전(4.3억 달러, 9%), 식음료(2.7억 달러, 5%) 순이고, 뷰타·퍼스널케어는 0.4억 달러, 1% 차지(유로모니터, 2019년 기준)
 - 5년 전(2014년)과 비교했을 때 의류·신발(10.3배), 뷰타·퍼스널케어(4.3배) 등 소비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진출전략 및 준비사항

- 인플루언서, 리뷰 마케팅 등 효과적인 홍보방안 강구 필요
 - 소셜커머스 플랫폼을 비롯,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인앱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확충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음
 - 리뷰(Review) 등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일반인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도 가성비 측면에서 주목 받고 있음
- 화장품, 식품, 전자기기 등 주요제품 인증 필수
 - 뷰티, 식품, 전자기기 등 이커머스 주요 판매품목은 대부분 태국정부 인증이 필수이고, 수입업자 명의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크로스보더 B2C 역직구 불가
 - FDA(화장품, 식품 등), TIS(전자기기 등) 인증기관별 요건 사전확인 필요

2-2.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한류 고도화 전략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태국 콘텐츠 시장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2위 규모(2020년 179억 달러 전망)로 코로나19 이후 홈엔터(게임, 음악, 웹툰 등) 및 e-에듀 등 주요 분야에서 수요 확산 추세
- 2019년 태국은 세계 11위 식품 수출국으로 전세계 식품 수출의 약 2.5%를 차지, 세계의 부역으로 불리는 태국 식품 시장 공략 시 아세안 국가 등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 용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한류 확산으로 홈코노미 관련 콘텐츠 및 제품 관심 증대
 - * 2020년 태국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10위에 한국드라마 7편이 선정되는 등 한류 인기 지속
-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문화 및 교육 콘텐츠 시장규모 확장 추세
 - 아세안 국가 중 선진화된 ICT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게임 및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성장세에 있으며, 최근 한국식 교육 콘텐츠 및 시스템, 교육 기자재에 대한 바이어 관심 증대
 - * 휴대폰 보급률 194.7%, 인터넷 보급률 75.3%, 5G 상용화 추진(2020년 5월 5G 위원회 발족)
- 태국의 식품산업 규모는 3조บาท(약 947억 달러)으로 추산되며 한류 확산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 꾸준한 증가세
 - * 2019년 태국의 대(對) 한 식품 수입액은 HS16-23단위 합산 기준 28억 บาท(약 9천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콘텐츠) 한류 콘텐츠 수요를 현지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과 결합하는 전략 필요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의 선진화된 에듀테크 및 교육 콘텐츠·기자재에 대한 바이어 관심 증대
 - 단, 태국의 교육 시스템과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 콘텐츠 구현 기술 관련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정권에 따라 태국 입시제도의 변동이 큰 바 성공적인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사업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
 - 기타 게임, 웹툰, 음악 서비스 등 모바일 콘텐츠 및 플랫폼 진출 유망하나 태국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대비 필요
- (식품) 홈코노미 수요 공략 및 SNS 마케팅을 활용한 진출전략 수립
 - 2020년 이태원클라쓰 등 요리를 테마로 한 한국 드라마 흥행으로 한국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SNS에 인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한식 소비성향이 등장해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뿐만 아니라 반조리식품, 장류, 소스류 등 진출 유망
 - 소셜네트워크 사용 비율이 높은 태국 소비자 성향 활용, 다양한 SNS 인증 이벤트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쿠킹쇼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꾸준한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구상 필요

2-3.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 GVC 재편 가속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전기·전자 생산기지로 많은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종사, GVC 참여 중
 - (자동차) 완성차 18개사, 1차벤더 700여 개사, 2·3차벤더 1,700여 개사
 - (전기·전자) 제조업체 약 2,500개사(가정용부품 약 1,000개사)
- 최근 코로나 사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변화와 태국 정부의 지속가능성장 모델인 BCG(Bio-Circular-Green Economic model) 모델의 추진은 태국 제조업 GVC의 변화를 가속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환경변화와 함께 태국 정부의 '태국 4.0', BCG모델 등의 정책추진에 따라 현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 활발
 - (자동차) 정부 정책에 따라 EV(전기차) 중심으로 재편 진행 중, 관련 수요 지속 확대

참고: 태국 EV(전기차) 생산동향

-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꾸준히 증가, 2036년 연간 약 120만 대까지 확대 계획
 - * (2017년) 103,702대 → (2018년) 124,085대 → (2019년) 156,038대 → (2020년) 172,068대

- (전기·전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지역 생산라인 이전 및 스마트전자 수요 확대에 따른 움직임 지속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글로벌 기업 동향(2019-2020)〉

구분	내용
자동차	· (Mitsubishi Motors) 태국 내 EV 생산라인 확대 결정 및 BOI 승인 · (TOYOTA DAIHATSU) EV 주요 부품 현지 공급 비중 확대 결정 · (GM) 중(中) Great Wall Motor(장성기차)에 태국 공장 매각 · (Loxley Public Company) EV VAN 및 Tuk Tuk(툽툽) 생산 비중 확대 · (Summit Auto/1차벤더) EV 배터리, 모터, 금형 등 수입 비중 확대
전기·전자	· (Ricoh) 중국지역 복합기 생산라인 이전 · (Sony) 중국지역 생산물량을 태국으로 이전 · (Besser) 중국지역 생산물량을 태국으로 이전 · (Delta Electronics) 투자 증설 및 태국 자회사 인수, 생산라인 확충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종합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글로벌 기업 GVC 재편 및 벤더 동향 주시, 맞춤형 대응 및 현지 유력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 우수성 홍보
- (유망품목) EV(전기차) 및 스마트 전자제품 관련 소재·부품·장비
 - (EV) 전기모터, 배터리 저장소, 충전 케이블, 전력 케이블, EV 금형, 주물 등
 - (스마트전자) IoT(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및 부품

2-4. 태국 정부 지속가능 성장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추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태국 정부는 환경정책 수준을 넘어, BCG Economy(Bio-Circular-Green Economic model)를 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성장 방향으로 제시
 - * 'Thailand 4.0 정책'에 이어 태국 정부의 핵심산업정책으로 부상
-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BCG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요인 발굴 및 대응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태국 정부는 농업 관련 산업, 천연자원 등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BCG Economy'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
 - 현 빠라웃 총리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따라 4대 핵심산업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정책 전반으로 BCG Economy 확산 예상

〈BCG Economy 4대 핵심산업〉

①식품 및 농업 (Food and Agriculture)	②의료 및 웰니스 (Medical and Wellness)
③에너지, 소재 및 바이오화학 (Energy, Material and Biochemical)	④관광 및 창조 경제 (Tourism and Creative Economy)

- 태국 정부는 4대 핵심산업의 규모를 현재 3.4조 바트(GDP 비중 21%)에서 향후 5년 내 4.4조 바트(GDP 비중 24%) 수준으로 집중 육성 추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G2G 협력 및 민관협력 컨소시엄 참여,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 기회 입찰 참여 노력 경주
 - * 태국 정부는 BCG 경제모델 추진을 위해 총18개(민관협력)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태국 투자청은 BCG 유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중으로, 단독·합작 등 투자를 통한 태국 시장 진출 방식도 검토 필요
 - 태국 주요 경제 특구화랑의 BCG Model 4대 핵심산업 육성 계획 등 참고
- BCG Model 4대 핵심산업 성장전략에 따른 진출 유망분야

식품 및 농업	스마트 농업, 농업 폐기물 관리, 고부가가치·기능성 식품 개발 등
의료 및 보건	백신, 바이오약품, 의료기기 분야 생산기술 및 R&D
에너지 소재 및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등 관련 활용 기술
관광 및 창조경제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개발, 관광 관련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3. 한-태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스마트시티 등 프로젝트 경험 확대, 관련 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태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건설(1965년, 현대건설) 진출국이나 이후 양국 간 건설 부문 협력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며, 공종별로는 산업설비(석유화학 플랜트)부분에 치중되어 있으며,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2017년 이후 전무한 상황
 - * 태국 프로젝트 수주현황: (2017년) 7.58억 달러 → (2018년) 19.71억 달러 → (2019년) 3.02억 달러
- ‘태국 스마트시티’, ‘메콩강유역 개발’ 등 양국간 경제협력(투자)이 확대됨에 따라 솔루션 수출뿐 아니라 토목·건축 등 건설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년부터 계획 중이던 태국 지자체(지역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착수 예정, 스마트 솔루션 구축, 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주 예상
 - * 태국 ‘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는 2020년 7월까지 총 39개의 지자체(지역)으로부터 조성계획을 보고 받고 2021년 내 승인 및 조성 착수 전망(2022년까지 총 77개 예정)
- 우리 정부, ‘K-city Network’, ‘메콩강 유역 개발’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對) 태국 지원 및 투자 확대
 - (K-city Network) 해외 정부의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및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국에서는 ‘공개 스마트 모빌리티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진행 중. 향후 사안에 따라 PIS 펀드* 투자, 다자개발은행(MDB)과의 공동투자 협의 등 지원 추진
 - *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약 1.5조 원 규모)
 -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한-메콩 협력기금을 3백만 달러로 증액하고 수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존 협력 및 투자 확대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각 지자체(지역)별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발주처 대상 솔루션 소개 및 정부 간 협력 사례를 활용, 패키지형(솔루션+건설) 진출 추진
- (유망분야)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및 신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건설 등 서비스 분야
 - * 솔루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oT 기술 기반 스마트에너지 솔루션 등
 - * 인프라·건설: 고속철도, 경전철, 산업단지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및 관련 기자재

3-2. 태국판 뉴딜정책 중점분야 선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1년 태국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비상사태 완화 등으로 플러스 전환 예상
 - * 다만, 태국 중앙은행은 2021년에도 외국인 입국이 저조해 2021년 경제성장률이 3.6%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021년에도 재정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과 성장을 제고의 마중물을 위한 '뉴딜정책' 지속 추진 예상
 - * 생필품 등 단기 경기부양 수혜 품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의약/바이오 등 전략적 육성분야, 인프라, 프로젝트 등 경기 부양형 태국 정부 사업에도 관심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1년 태국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7~-8% 관측)에 대한 기저효과로 플러스 전환 예상
 - 2020년 3분기부터 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국가비상사태 완화조치로 하락세 완화
 - 다만, 태국 중앙은행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고려 시 2021년에도 외국인 입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0년 9월,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3.6%로 하향 조정
- 태국은 2021년에도 성장을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지속적 재정투입 예상
 - 추가 부양에도 공공부채 비중은 적정 상한선 목표(60%) 이내가 될 것으로 추산
 -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 수립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태국 정부 경기부양 수혜 품목 및 전략적 육성 관심분야 진출 선정
 - (식품 및 관련 유통·서비스) 관리산업으로 선정돼 밸류체인 관리, 공급확대 지원 중인 서민생활 7대 품목 등 생활필수재 집중 공략
 - * 가공식품, 쌀, 즉석식품, 물, 과일주스, 음료, 의료장비
 -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단기 자금경색 완화를 넘어 원격의료,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태국의 체질개선 노력에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 접목
 - (의약/바이오) 외국기업 투자 세제혜택, 수입관세 면제 등 활용 및 관련분야 우수 태국대학과의 산학 협력 모색
- 경기부양과 연계된 태국 정부의 인프라 및 주요 프로젝트 추진 모니터링 필요
 - 스마트시티, 철도·항구·공항 등 인프라 및 환경·수처리·정유 플랜트 등

3-3. 투자, M&A, 창업 등 현지화 중심 패키지형으로 진출 고도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태국은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세제비세제 혜택 및 고속철, 항구, 도로 등 인프라 집중 개발로 투자환경 지속 개선 중
- 아세안 GDP 2위, 아세안 최대 제조업 능력 등 태국의 시장가치를 반영해 수출과 연계한 투자진출, M&A, 글로벌 창업 등 현지화 중심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추진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동부경제회랑(EEC)은 태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발 중인 방콕 동남부의 **춘부리, 라용, 차츰사오 등 3개 지역**을 의미
 - 2018년 5월 발효된 EEC 특별법에 따라 **토지 장기임차 99년**(기본 50년, 연장 49년) 허용, **최장 15년 간 법인세** 면제, 개인소득세 최대 17% 제한(통상 최대 35%), 5년 유효 비자제공, 민간협력(PPP) 참여시 3개월 내 행정처리 등 특혜 제공
- 태국 정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EEC 인프라 개발에 2021년까지 약 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민간 협력(PPP), 정부, 국영기업, 왕실 등에서 자원 조달)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주요 투자계획〉

U-Tapao 국제공항(57억 달러)	Map Ta Phut 항구(3억 달러)	Laem Chabang 항구(25억 달러)
고속철(45억 달러)*	관광(57억 달러)	공업(140억 달러)
고속도로(10억 달러)	신도시/병원(115억 달러)	철도 복선화(18억 달러)

자료: 태국교통부(MOT), 태국투자청(BOI)

- 한-태 양국은 2019년 MOU를 체결(KOTRA-동부경제회랑사무국)하고, 동부경제회랑을 통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 추진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화 중심의 패키지형 해외 진출 추진 필요
 - 아세안 GDP 2위, 아세안 최대 제조업 능력 등 태국의 시장가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수출과 연계한 투자 진출, M&A(인수합병), 글로벌 창업 등 진출 방식 고도화
- 태국 정부 제공 경제특구 투자 특혜 적극 활용
 - 12대 미래산업 관련 EEC 내 특별경제진흥구역(SEPZ) 투자 기업들에게 세제 및 비세제 혜택 제공

12대 미래산업

-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 교육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 관세율(%)	0%(FTA)
화장품  이미지: 라네즈 타일렌드	수입액 (2019/US\$백만)	1,123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101.6
	선정사유	• 한국 드라마에 의한 한류 수혜로 한국 화장품 인기 지속 • 코로나19로 수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선전 중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35.1%, 대한 수입액 -13.3%		
	시장동향	• 경쟁 격화로 2019년에는 8% 감소(수입시장 순위로 4위→6위로 하락 / 미국, 싱가포르에 추월) • 2019년 수입시장 규모가 13.1% 커지는 등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		
	경쟁동향	•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		
	진출방안	• SNS 등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마케팅 및 판촉 활동 • 가격 경쟁력 및 기능, 원료, 포장 등에서 참신한 중요 • 한국 트렌드에 민감하므로 국내시장 성공 여필 중요		
품목명 2	HS Code	1902.30	수입 관세율(%)	면세
라면 등 가공식품  이미지: 탑스슈퍼마켓	수입액 (2019/US\$백만)	29.9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22.5
	선정사유	• 태국은 세계 9위의 라면 소비 대국,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소비 더욱 증가 • 한국 제품이 수입시장 압도적 1위 차지(75%), 새로운 맛·제품 및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제품에 즉각적 관심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23.4%, 대한 수입액 35.6%		
	시장동향	• 2018년(점유율 71.9%, 수입액 19.7백만 달러) 대비 수입금액, 점유율 모두 증가		
	경쟁동향	•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진출방안	• 태국인 기호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지속 개발		
품목명 3	HS Code	8421.39	수입 관세율(%)	5%
공기청정기  이미지: LG전자	수입액 (2019/US\$백만)	213.4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8.0
	선정사유	• 미세먼지가 매년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코로나19로 실내생활이 늘어나 수요 급증 • 낮은 보급률로 시장 지속 확대 기대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1.3%, 대한 수입액 7.0%		
	시장동향	• 최근 한국산 수입액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2017년→2018년 70% / 2018년→2019년 94.6%) • 소득수준 대비 다소 고가로 경기에 민감할 수 있음		
	경쟁동향	•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독일 등		
	진출방안	• 소형, 디자인, 스마트 기능, 가성비 등 프리미엄 제품 대비 차별점을 마케팅 포인트화		

품목명 4	HS Code	9018 등	수입 관세율(%)	면세
의료기기	수입액 (2019/US\$백만)	702.2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14.5
	선정사유	·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 · 의료 관광객 연간 330만 명 수준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3.3%, 대한 수입액 5.1%		
이미지: 아마존	시장동향	·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의료기기 및 질병 예방 관련 진단기구 수요 증가		
	경쟁동향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진출방안	· 태국 의료기기 전문전(Medical Fair) 참가 ·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현지 세미나 개최 또는 참가		
품목명 5	HS Code	3004.90	수입 관세율(%)	0%
의약품	수입액 (2019/US\$백만)	1,332.6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42.1
	선정사유	· 동남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메디컬 허브 정책을 통해 핵심산업으로 육성 중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2.3%, 대한 수입액 0.1%		
이미지: 아마존	시장동향	· 고령화 지속, 의료보험정책 등으로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한국은 수입시장 점유율 11위로 2017년(14위), 2018년(12위) 대비 지속 상승 중		
	경쟁동향	· 독일, 인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진출방안	· 의약품 인증에 상당한 시간 소요, 가격, 품질과 더불어 인증을 위한 서류 완비 필수적 · 태국 현지 제조업체에 라이선스 제공 진출		
품목명 6	HS Code	8708	수입 관세율(%)	최고 24%
자동차 부품	수입액 (2019/US\$백만)	6,785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133.4
	선정사유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세계 9위의 완성차 생산국가(2019 기준)로 연간 200만 대 이상 생산(예년 기준) * 코로나19로 2020년 100~140만 대 정도 축소 예상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32.9%, 대한수입액 -39.4%		
이미지: 데일리카뉴스	시장동향	· 자동차 부품 시장은 자동차 산업의 전장화, 경량화, 친환경화를 반영하여 변화 예상 · 태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육성정책 추진으로 밸류체인 변화 · 외국계 완성차 기업들은 역내 구매를 확대하고 있어 아세안 전체를 고려한 현지 투자 진출도 검토		
	경쟁동향	· 일본,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진출방안	· 태국 자동차 부품 및 전기차 전문전시회 참가		
품목명 7	HS Code	8429.52	수입 관세율(%)	0%(FTA)
건설 장비	수입액 (2019/US\$백만)	316.9	대한 수입액 (2019/US\$백만)	23.4
	선정사유	· 공공/민간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발주 확대에 따른 지속적 수요 증가 * 코로나 영향: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 8.8%, 대한 수입액 -37.1%		
이미지: 수미토모나코	시장동향	· 중고와 신규 장비 비율이 약 7대 3정도이며, 중고 장비의 90%는 해외에서 수입 · 태국 내 자체 생산 가능한 건설장비는 일부에 불과		
	경쟁동향	·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진출방안	· 완제품 보다는 부분품 위주로 시장 진출 유망 · 가격경쟁력과 더불어 A/S 조건 확보		

품목명 1		
이커머스	선정사유	· 태국 모바일 보급률이 200%에 가깝고 e-payment 시스템, 배송 물류 투자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태국 이커머스 성장률: (2019년) 60.6% → (2020년(F)) 37.5% → (2021년(F)) 29.8%, 유로모니터)
	시장동향	·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친숙도 증가
	경쟁동향	· B2C 플랫폼이 주도(중국 알리바바가 인수한 LAZADA가 매출액 1위이고, Shopee가 2위, 2018.9월 중국 징둥닷컴과 태국 센트럴 합작 JDCentral 론칭)
	진출방안	· 한류를 연계한 플랫폼 구축을 적극 추진, 태국 유력 업체와의 협력 검토, 라이브 커머스 활용
품목명 2		
택배업	선정사유	· 태국 내 이커머스 확대로 택배 시장 동반 성장 (택배 시장규모: (2015년) 21억 달러 → (2018년) 41.5억 달러로 96.7% 성장하며 4년 사이 약 2배 확대) - 코로나 사태로 물류산업은 하락세이나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택배산업은 성장세 유지 예상
	시장동향	· 빠른 배송 경쟁, 영업시간 연장/연중무휴 서비스 실시, 신선식품 냉장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경쟁동향	· 태국 우체국(Thailand Post)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콩계(Kerry Express), 싱가포르계(Ninja logistics), 한국계(CJ Logistics), 태국계(Alpha) 택배업체 간 경쟁 치열
	진출방안	·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체결,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품목명 3		
콘텐츠	선정사유	· 모바일 게임, 웹툰, 교육 등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 잠재력 유망
	시장동향	· 2016년 4G 보급, 2020~2021년 5G 상용화 예정으로 모바일 게임, 인터넷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 추세
	경쟁동향	· NHN 등 한국 업체 진출 활발, 중국·싱가포르계 게임 진출도 활발
	진출방안	· 태국어 작업 및 현지 선호를 반영한 현지화 중요
품목명 4		
S/W	선정사유	· 태국4.0 정책 추진 등으로 S/W 수요 확대 · 외국인 의존도가 높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많으나 태국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해 의료IT, 보안솔루션 등 유망
	시장동향	· 제조업, 금융, 통신, 의료 부문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BMW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및 사물인터넷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 독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S/W 업체가 시장 선두
	진출방안	·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보안솔루션, 의료IT 분야 유망, 현지화 필요
품목명 5		
엔지니어링	선정사유	· 태국 업체의 석유화학 플랜트 엔지니어링 역량이 부족하고, 인프라 분야 엔지니어링도 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
	시장동향	· 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가 유망 시장
	경쟁동향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인지도 높은 글로벌 업체 주도
	진출방안	· LNG플랜트 등 국내 업체가 강점이 있는 분야 개척

① 한류·온라인/이커머스 활용 지원 사업

○ (소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태국 온라인몰 입점지원 사업

- 시기/장소: 2021년 상·하반기/태국 방콕
- 규모/분야: 반기별 15~20개사 내외/화장품, 식품 등 주요 소비재
- 사업내용: 태국 이커머스 플랫폼 내 현지 벤더 스토어 입점, 인플루언서 홍보 지원

○ (소비재) 현지 방송콘텐츠 PPL 활용 태국 진출 지원 사업

- 시기/장소: 미정/태국 방콕
- 규모/분야: 20개사 내외/화장품, 식품 등 주요 소비재
- 사업내용: 태국 방송콘텐츠(드라마, 예능 등) PPL 매칭, 온라인몰 입점 지원, 인플루언서·SNS 홍보 지원, B2B 수출상담 등

○ (소비재) KCON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미정(KCON Thailand 콘서트 개최 연계)/태국 방콕
- 규모/분야: 국내 화장품, 일반 소비재 기업 30개사 내외, 태국 바이어 60여 개사
- 사업내용: CJ 주최 한류문화 행사인 KCON*과 연계,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 태국은 2018년, 2019년 개최, 2020년은 취소

○ (소비재) K-Food in Bangkok 수출상담회 개최

- 시기/장소: 2021년 하반기/태국 방콕
- 사업규모/분야: 20개사 내외/식품
- 사업내용: K푸드 현장 시식회(쿠킹쇼), 웨비나 및 온라인 상담회

②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BCG 경제모델 대응 사업

○ (소재·부품) GP(글로벌 파트너링) ASIA 2021

- 시기: 2021년 하반기
- 사업규모: 아세안 지역 글로벌 기업 15개사, 진출 희망 국내 기업 30개사 내외
- 사업내용: 글로벌 기업 동향 및 구매정책 설명회/1:1 상담회

○ (소재·부품) GP(글로벌 파트너링) 핀포인트 상담회

- 시기: 2021년 연중
- 사업규모: 태국 내 글로벌 기업 5개사 및 관련 국내 기업 20개사 내외

- 사업내용: 현지 글로벌 기업-국내 기업 간 화상상담 및 방한지원 등

○ **(의료·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쇼 개최**

- 시기/장소: 2021년 상반기/태국 방콕 시내 호텔
- 사업규모: 바이어 30개사, 국내 기업 15개사 내외
- 주요 품목: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기, 솔루션 등

○ **(농업/바이오) 방콕 농업박람회 연계 스마트팜 로드쇼**

- 시기/장소: 2021년 5월 말(방콕 아시아 농업 박람회 개최 연계)/BITEC
- 사업내용: 전시상담회(온라인), 태국 스마트팜 진출전략 웨비나 등
- 주요 품목: 스마트팜 로봇, 기자재, 솔루션 등
- 참가배경: 태국정부의 BCG Economy 추진에 따른 스마트 농업 시장 진출 기회 활용

③ 한-태국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지원 사업

○ **한국-태국 투자협력 포럼 개최**

- 시기: 2021년 상반기
- 규모: 한-태 양국 기업, 정부, 유관기관 인사 등 총 300명 내외
- 사업내용: 투자협력 포럼, 스마트시티 플라자, 스타트업 페어, 동부경제회랑(EEC) 시찰
- 목적: 신남방 중심 국가이자, 모범 방역국인 태국 내 투자처 발굴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GVC 개편 움직임 대응

○ **태국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사업**

- 주요 활동: 태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관련사업 개최

① **한-태국 스마트시티의 날 개최**

- 시기/ 장소: 2021년 하반기(잠정)/ 태국 방콕
- 사업 규모: 한-태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등 총 150명 내외
- 주요 내용: 스마트시티 협력 포럼 및 1:1 상담회

② **타일랜드 빅뱅(Thailand Bigbang)* 2021 참가**

- 시기/ 장소: 2021년 하반기/ 태국 방콕
- 참가 규모: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 기업 20개사 내외
- 주요 내용: 전시회 참가 및 IR 등 연계사업
- * 태국 스마트시티 관련 최대 종합전시회

③ **태국 스마트시티 진출협의회 운영**

- 운영 시기: 2021년 연중
- 운영 규모: 현지 진출 또는 진출 희망 국내 기업, 기관 등 총 20명 내외
- 주요 내용: 스마트시티 협업 논의 및 한-태 양국 정부 건의 등

4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태국 전시회 참가 사업

○ (농업/바이오) 2021 태국 방콕 아시아 축산 전시회(VIV Asia)

- 시기/장소: 2021년 3월 10~12일(3일간)/BITEC
- 주요 품목: 동물용 사료 원료 및 첨가제, 동물 의약품, 축산용 기자재 등
- 참가배경: 세계 3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로 태국 및 아세안 시장 진출 계기 마련
 - * 한국동물의약품협회와 공동주관으로 KOTRA에서 한국관 참가(P2)

○ (기계/부품) 2021 태국 방콕 기계 전시회(METALEX)

- 시기/장소: 2021년 11월(4일간)/BITEC
- 전시품목: 금속가공기계, 자동화기기 등 기계류 및 부품 전반
- 참가배경: 기계류는 태국 수입 상위 3대 품목으로 성과 창출 위한 지속적 노력 필수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공동주관으로 KOTRA에서 한국관 참가(P2)

○ (화장품) 2021 태국 방콕 방콕뷰티쇼 전시회(Bangkok Beauty Show)

- 시기/장소: 2021년 7월 15~17일(3일간)/BITEC
- 전시 품목: 화장품, 헤어, 네일, 피부미용, 바디케어, 스마트 뷰티기계 등
- 참가배경: 한국은 태국 화장품 수입시장 점유율 6위로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과 치열하게 경쟁 중. 한류활용 우리 화장품만의 매력 어필 필요
 - * KOTRA에서 참가기업 대상 수출상담 지원(KINTEX가 현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 (포장/가공) 2021 태국 방콕 식품가공, 충전 및 포장기술 전시회(ProPak Asia)

- 시기/장소: 2021년 6월(4일간)/BITEC
- 주요 품목: 식품, 음료, 제약, 화장품 등 포장기자재, 검사 장비 등
- 참가배경: 태국 수출 유망품목인 식품, 화장품, 의약품과 연계하여 시장진출 가능
 - * 한국포장기계협회와 공동주관으로 KOTRA에서 한국관 참가(P3)

첨부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헌법개정안 추진	미정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간판법 개정 - 간판세 변경 (기존 10~200บาท → 5~1,040บาท)	2021년 1월	-
○ 개인정보보호법 발표 - 당초 2020년 발효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	2021년 5월	-
○ FTA	미정	터키, 스리랑카, 파키스탄 FTA 협상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태국 방콕 아시아 축산 전시회(VIV Asia)	2021년 3월 10~12일	KOTRA 한국관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THAIFEX)	2021년 5월 25~29일	-
태국 방콕 전기자동차 기술 전시회(EV Asia)	2021년 6월	-
태국 방콕 식품가공, 충전 및 포장기술 전시회(ProPak Asia)	2021년 6월	-
태국 방콕 수자원 전시회(Thai Water)	2021년 6월 10~12일	-
태국 방콕 제조 생산 전시회(Manufacturing Expo)	2021년 6월 23~26일	-
태국 방콕 뷰티쇼 전시회(Bangkok Beauty Show)	2021년 7월 15~17일	KOTRA 수출상담지원 KINTEX 주최
태국 방콕 의약품 전시회(CPhi SEA)	2021년 8월 4~6일	-
태국 방콕 공조 전시회(RHVAC)	2021년 9월 1~4일	-
태국 방콕 아세안코스모프로프 전시회(COSMOPROF CBE ASEAN)	2021년 9월	-
태국 방콕 정보통신 전시회(CeBIT ASEAN Thailand)	2021년 10월	-
태국 방콕 기계 전시회(METALEX)	2021년 11월	KOTRA 한국관

1. 한-태국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태국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 태국의 잠재력

-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보유
-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 아세안 내 패션, 화장품 등 소비 대국**

* 2019년 기준 GDP(단위 US\$/IMF): 인도네시아 1,12조, 태국 5,436억, 필리핀 3,768억, 말레이시아 3,647억, 베트남 3,295억

- **아세안 최대 제조업 국가로 1, 2, 3차 산업이 균형 있게 발달**

* 쌀·새우·고무 등의 세계적인 농수산물 생산 및 수출국가(1차 산업), 아세안 최대 자동차·전자 생산 및 수출 허브로 폭 넓고 깊은 제조업 GVC 구축(2차 산업), 최대 연 3,980만 명을 유치(2019년 기준)한 외국인 관광 활성화(3차 산업)

-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독자적으로 **13개 FTA 지역무역협정** 체결한 **개방형 통상 국가**

□ 주요국의 대(對) 태국 경제협력 현황

-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태국과의 협력기반을 공고화**

〈주요국의 대 태국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일본	• 2017년 태-일 수교 130주년, 일본은 전통적인 대 태국 최대 투자국 • (무역) 일본은 태국의 3위 수출국(2019년 245억 달러)이자, 2위 수입국(2019년 336억 달러) • (투자) 일본은 전통적인 최대 외국인투자국이나 3년 연속 투자 승인 비중 감소 • (FTA) 2007년 11월 개별 국가 차원 일본-태국 경제파트너십협정 발효, 2009년 6월 아세안 회원국으로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 파트너협정 발효 • 태국 주요 완성차 및 전기전자 업체 및 협력사 태국 현지 진출을 통한 태국 자동차 시장 장악
중국	• 1975년 태국과 외교관계 수립 • (무역) 중국은 태국의 2위 수출국(2019년 290억 달러)이자, 최대 수입국(2019년 510억 달러) • (투자) 중국은 2019년 2위 투자국으로 28.4억 달러의 투자 승인 획득 • (FTA) 아세안 회원국으로 2005년 7월 중국-아세안 FTA 발효
미국	• 1818년 태국과 외교관계 수립, 1833년 태국과 우호조약 체결 • (무역)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국(2019년 313억 달러)이자, 3위 수입국(2019년 176억 달러)

태국 경험과 연계한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현재 아세안 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인구를 기반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



- 1967년 8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창설, 2003년 1월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AFTA) 발효,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역내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강화
- 시장통합 시 인구 약 6.47억 명의 거대 시장 탄생, 2019년 아세안 평균 GDP 성장률 4.8%로 세계 GDP 성장률 2.8% 상회
- 한-아세안 FTA 적용,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권이며, 제조업 허브, 소비 대국으로 태국을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베트남과 더불어 포스트 차이나 기지로 주목



- 아세안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 중, 일, 인도, 호주·뉴질랜드, 홍콩 등 7개국과 6개 FTA 체결, 태국 독자로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방글라데시 7개국 협력기구(BIMSTEC) 등 13개국과 7개의 양자 FTA 체결 중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터키, 스리랑카와 FTA 협상 진행 단계,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EU와의 FTA 협상 재개 준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타당성 조사 중

▶ 중산층 증가로 소비성향 서구화·고급화

- 소규모 가족 형태 증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외식, 쇼핑, 여행에 높은 관심 및 지출
- 중산층 및 고소득층 증가와 태국 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대형 고급 쇼핑몰 다수 입점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급증(2015년 9억 달러, 2018년 30억 달러, 2025년 130억 달러로 성장 예상, Google/Temasek)

▶ 대한(對韓) 우호적 분위기에 따른 협력 수요 증대

- 우리나라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태국 4.0' 정책의 유사성 존재해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
- 태국은 한류 열풍의 진원지이며 한류 열풍 지속 중으로 K-Wave가 K-Food, K-Fashion, K-Style, K-Life로 발전 중
 - 태국의 입법·행정·사법부에서 한국시스템(K-System)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한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
- 태국은 신남방지역 최대의 한국어 학습국으로 태국 대학입학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채택
 - 2019년 기준 133개 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한국어 학습인원 4만 583명
- 태국 정부는 대 태국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의존도 축소를 위한 투자국 다변화 희망
- 대중 무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수출입 시장 다변화 추진

▶ 대(對) 아세안 투자 확대 예상

- 아세안 시장의 높은 성장성,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로 아세안이 대안지로 부상함에 따라 미-중 무역 분쟁을 피해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 투자 시 대 아세안 수출, 대미 수출, 대중 수출에 유리
- 한국의 대 아세안 투자 규모는 2013년 39억 달러 → 2018년 61억 달러로 6년간 58% 증가

□ 한-태국, 60년 이상의 수교 기간 대비 경제협력은 미흡한 수준

- 태국은 6.25전쟁 당시 6천여 명의 지원군을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
- 1958년 10월, 한-태간 정식 외교관계 수립
- 1961년 무역협정 발효, 2007년 이종과세방지협정 발효

- 2010년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 발효 이후 2011년 양국 수출입 사상 최대치 (133억 달러) 기록 후 2018년 최고치 경신(141억 달러)

* 2009년 9월 태국의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발효,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태국 제외)

- 2016년 3월, 제1차 경제협의회 개최(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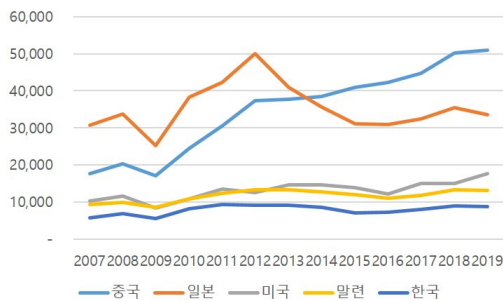
- 2019년 9월 양국 정상 회담개최(태국)

* 2019년 9월 정상순방 계기, 양국간 6개의 MOU 체결

- 주요 교역국인 일, 중 대비 투자, 교역, 금융기관 진출 미흡

〈한국-태국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태국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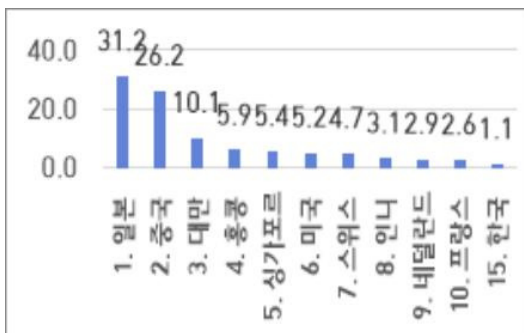
- 2019년 태국의 주요국 수입액은 중국으로부터 약 509억 달러, 일본 336억 달러, 미국 176억 달러, 말레이시아 131억 달러, 한국 87억 달러(5위) 규모
- 태국의 대한 수입은 2~4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
- * 2009~2011년 증가, 2012~2015년 감소, 2016~2018년 증가, 2019년 글로벌 교역 감소로 감소세 전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예상, 지난 3년간 수입 지속적 증가(+27.2%)

2. 대(對) 태국 한·중·일 수출 상위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9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전기기기	철강	기계	플라스틱	광물성 연료
중국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철강	철강제품
일본	기계	전기기기	철강	자동차	플라스틱

- (수출경합도) 대(對) 태국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4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3개 품목이 겹침

3. 2019년 태국 외국인 투자 비중(좌) 및 현황(우)(태국투자청(BOI) 승인 기준)



- 한국의 대(對) 태국 직접투자(2019년 총 31.4억 바트)의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
- 일본이 전체 투자 승인의 31.2%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약 1.1% 차지 (15위)
- 태국 진출기업 수: 한국 400개사 VS 일본 5,000개사 이상
- 2019년 태국 내 총 외국인투자 승인 금액의 77.6%가 10대 미래산업에 집중된 가운데 자동차, 전자, 화학, 농업 순으로 투자 활발

□ 글로벌 기업의 장기 성장과 위험관리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 기업은 CSR과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여건 강화

* 2016년 전세계 CEO 75% 이상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비교우위와 성장기회 확보에 중요하다고 대답(CSR Europe 설문조사, 2017)

○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을 거래기업의 선결 이행요건으로 반영, 무역장벽으로 적용하는 사례* 증가

* 국내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 시 CSR 평가를 받았고, 미흡 시 협력사 선정 배제·조건부 납품 등 불이익
→ 컨설팅·교육, 정보 공유, 인증 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2018, 대한상의)

** 미국 대표기업 CEO 181명이 고객, 직원,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를 고려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사회적 책임 강조 성명서 발표(2019년 8월 19일 동아 등 보도)

– 태국을 비롯한 개도국도 점차 CSR을 강조하면서, 비용절감 등을 위해 개도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 증가

○ 신용평가 기관, 투자은행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

* S&P, Moody's는 환경, 사회 등 평가, Goldman Sachs 등은 CSR을 평가모델에 반영

□ 한-태 양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상보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고착화 등 문제가 심화됨

* 2000~2016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ECOS)

** 2017년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기준 불평등도 3위(OECD, 2018년 3월)

○ 양극화, 고실업, 사회갈등 등 주요 문제 해결·완화의 주요 키워드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 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 한(韓) 사회 신뢰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을 1.5%p ↑ (2016년 서울대 김병연, 대한상의)

**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 뿌라웃 총리: 상호 호혜적인 성장을 위한 신 경제정책 도입

나. 한-태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 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도입을 위한 『Thailand 4.0』 정책과 포용적이고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BCG(Bio-Circular-Green) 경제 모델』 도입·추진

〈태국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 방향)
차세대 자동차 (전기차)	◆ 교역대상 다변화: 미·중·일 경제 의존도 ↓, 보호무역 대응
헬스케어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신재생에너지, 교통 분야
스마트시티	◆ EEC 지역 내 타깃 산업 유치
신재생에너지	◆ 4차 산업 분야 협력: ICT,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국 혁신역량 강화 : 농업 및 식품,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에너지
교육	◆ 코로나19대응: 의료 기기 등 방역관련 산업

〈태국의 권역별 협력 수요〉

권역	내용
중국	· 중국 일대일로(OBOR)와 연계한 태국 내 인프라 진출 확대 · 탈 중국 생산기지 이전 수요 투자 유치 희망
미국	·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대(對) 미 수출입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기대
EU	· 2014년 5월 이후 중단된 태-EU FTA 협상 재개 희망 * 2020년 9월 주요 이해 당사자 공청회 실시 등 재개 준비
아시아	· 아시아 주요 3개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 강화 · 아세안(ASEAN) 단일 인증, 국가단일창구(NSW) 등 통합 가속화

□ 우리나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국가인 태국과 경험개발 노력

〈태국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스마트시티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 보유 - KSP, 한류 등
의료·바이오	교육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 전통적 ICT 강국 -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세계 10위(IMD, 2019년 기준) * 태국 40위 - 세계 최초 5G 도입
에너지/인프라	화장품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 미래 자동차(전기차·수소차) 선두주자

□ 양국 상생협력을 통해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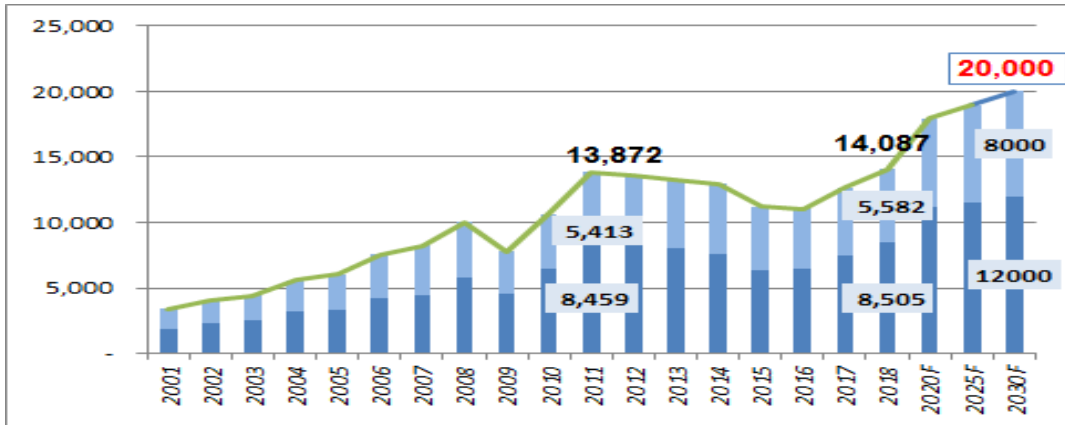
교역액 목표 설정 근거

◆ 2030년 양국 교역 200억 달러 달성

- 2018년 교역 141억 달러 대비 59억 달러, 42% 증가치
- 2018년 태국은 우리나라의 제15위 수출국, 제23위 수입국, 제18위 교역 대상국, 2030년 제10위 수출국, 제20위 수입국, 제15위 교역 대상국 도약 기대

〈대(對) 태국 교역 추이 및 목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2001~2018 한국무역협회, 2020, 2025, 2030년 전망치는 방콕무역관 계산

□ 한-태국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 모델 도입 등에서 정책방향을 함께하는 태국과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협력을 모색하여 양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기존	개선
수행 주체	KOTRA 단독	KOTRA + 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핵심 자원	127개 해외 인프라 등 인적자원	인적자원 + 빅데이터 + 타기관 인프라
주요 사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진출 지원 + 인적·문화 교류 + CSR

2.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호혜적 성장 도모

□ 수요 및 역량 분석

- **(태국 정책 수요)** 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경제성장** 정책으로 ‘BCG(Bio-Circular-Green) 이코노미’ 모델 도입
 - BCG 모델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경제모델
 -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준수하며 태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원칙인 충족경제철학(Sufficient Economy Philosophy)에 기반
 - 4대 핵심 분야인 ‘식품 및 농업,’ ‘의료 및 웰니스,’ ‘에너지/소재/바이오 화학,’ ‘관광 및 창조 경제’ 분야를 집중 육성
- **(핵심 목표)** BCG 모델 실행을 통하여 식량, 공중보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소득분배촉진, 사회적 격차 축소,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 향후 10 년 동안 1,00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농민 소득을 연간 24만 바트까지 향상 기대
 - ** 4대 핵심산업 규모를 현재 3.4조 바트(GDP 비중 21%)에서 향후 5년 내 4.4조 바트(GDP 24%) 수준으로 확대 기대
- **(글로벌 수요)**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거래기업의 선 이행요건으로 반영하거나 무역 장벽으로 적용하는 사례 증가
 - * 미국 대표기업 CEO 181명이 고객, 직원,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사회적 책임 강조 성명서 발표(2019년 8년 19일, 동아일보 등)
 - ** 국내 수출기업 54%가 글로벌 기업 납품 시 CSR 평가를 받았고, 미흡 시 협력사 선정 배제·조건부 납품 등 불이익 → 컨설팅·교육, 정보 공유, 인증 비용 등 정부지원 필요(2018년, 대한상의)
 - 신용평가 기관, 투자은행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
 - * S&P, Moody's는 환경, 사회 등 평가, Goldman Sachs 등은 CSR을 평가모델에 반영

□ 한국 정부와 KOTRA의 역할

- **(정부)** ‘사회적가치기본법(안)’ 국회 발의, 사회적 책임 확대 등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이 국회 발의
 -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는 모범국가 도약
- **(KOTRA)**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 수립**
 - 코로나19에 따른 KOTRA 사회적 가치 재정의 및 브랜드화 추진
 - 사회적 약자기업 코로나 위기극복 적극 지원, 지역밀착형 사업 개발
 - 글로벌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UN SDGs 가치 내제화 및 확산

□ 협력방안: 국제사회 협업과 소통을 통한 Collective Impact 효과 극대화

- (공공부문 제도개선 협력)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 내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관련 상호 논의 및 제도개선 협력
- (글로벌 CSR 사업 추진) 교육의 질 향상, 지역사회 소득격차 축소 관련 양국 정부부처-KOTRA-기업 연계 CSR 사업 지속적 추진
- (인권보호 및 인력교류 확대 지원) 한국 내 태국 근로자 인권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대한 필요인력 교류 지원
- (사회적 가치 창출형 경험 확대) 대사관, KOTRA 등이 정보를 발굴하고 양국 사회적 가치 기업의 상대국 수출 확대 지원방안 마련
- (첨단산업 분야 프로젝트 투자 유치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 한-태 정부 산업육성정책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 중점 발굴 및 유치
 - * (한) DNA+Big3: Data, 5G,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 (태)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식품, 스마트 팜 등 고부가가치 산업

나. (B2B) GVC변화/소비재/헬스케어/교육 분야 기여도 증가

① 전기차 GVC 진입 협력

□ 수요 분석

- **(태국 정책 수요)** 자동차 산업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전략육성 산업으로 전기전자, 식품과 함께 태국의 3대 제조업에 해당
 - 태국 정부는 전기자동차를(EV)를 태국 12대 타깃 산업 중 핵심산업으로 지목하여 범정부차원의 육성전략 수립
 -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연구개발 및 제조, 자동차 배터리 개발, 자율운행차, 인텔리전트 수송 시스템 등의 활동이 포함
 - 2020년 3월, 2025년까지 태국을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태국 전기차 로드맵 (Thailand Smart Mobility Roadmap 2020-2030)' 발표
 - *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0~25만 대, 전기 버스 3,000대 생산 목표
 -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 설립을 통한 전기차 육성 계획 집중수행(2020년 3월)
 - 태국 투자청은 2017년 3월부터 전기차 생산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신청 접수 시작

전기차 투자 승인 획득 기업

Toyota, Honda, Nissan, Mazda, Mercedes-Benz, BMW, SAIC Motor-CP, FOMM, Mitsubishi, Mine Mobility 등

-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유인을 위하여 태국 제조 전기차 구매 시 소비세(2020~2022년) 한시적 면제 정책 실시

* 수입산 전기차 소비세율: 8%

○ **(양국 협력 수요)**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 계기, **전기자동차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국전기자동차협회(KEVA)와 태국전기자동차협회(EVAT)간 전기차 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한 플랫폼 협력 관련 우수기업 발굴 및 기업 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완성차, 배터리, 충전기,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부품 등 관련 기업의 현지 진출 협력, 친환경 전기구동 방식인 e-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협력, 전기차 분야 우수기업 발굴, 해외진출 협력 및 제반 정보 제공 예정

□ 역량 분석

○ **(현지 역량)** 태국 내 전기차 조립은 2009년부터 실시, 현재까지 13개 이상의 기업이 태국투자청(BOI) 승인 획득, 2020년 중 2개사가 전기차 생산 착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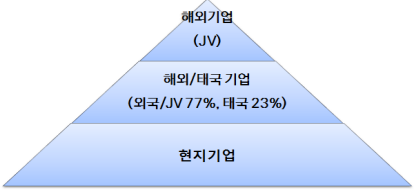
태국 전기차 연간 생산 능력

- 하이브리드전기차(HEV): 35만 2,500대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9만 7,640대
- 배터리 전기차(BEV): 9만 3,220대
- 배터리: 18만 8,220대

태국 자동차 산업 현황

- 2019년 기준 자동차 201만 대 생산으로 세계 9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100~140만 대 생산 전망(태국산업연맹)
 - 2018년 태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 생산 7.1% 감소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 및 수출국으로 자동차 생산 관련 탄탄한 GVC 기 구축
 - 태국은 완성차 19개사, 오토바이 제조사 10개사, 1차 벤더 500여 개사, 2·3차 벤더 1,700여 개사가 생산에 참여
 - 자동차 산업 분야에 89만 명의 노동력을 보유, 자동차 산업은 태국 GDP의 약 12%를 차지
- 태국 완성차 브랜드의 현지 조달 비중: 픽업 차량 60~80%, 승용차 90% 수준

태국 자동차 산업 GVC 구조

태국 자동차 산업 GVC 구조		주요 대상 기업(예시)
	완성차 (19개사)	도요타, 혼다, 이스즈, 닛산, 미쓰비시, 스즈키, 마쯔다, GM, 포드
	Tier 1 (523개사)	덴소, 보쉬, 타이서밋(Thai Summit)
	Tier 2, 3 (1,667개사)	* 현지진출 중소기업, 현지기업 등

*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 회사 중 50개 진출(일본계 30개사)

자료: 태국 투자청(BOI)

- **(우리 역량)** 일부 전기차 부품(배터리,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차량 간 통신기술(커넥티비티)) 관련 강점 보유, '태국 기후 및 노선에 맞는 전기 버스 개발, 충전소 설치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진행

□ 협력 방안

- **전기차 관련 부품 등 공동개발(전략적 기술 제휴)**
 -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배터리 팩 등) 기술개발 협력 등의 내용으로 기술 제휴협약 체결, 양국 기업 간의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및 성능 향상, 한국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품 현지 조달 및 공급망 확충
-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 전기차 충전소 설치, ICT 시스템 등 국내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들의 독자적 또는 합작 투자 진출
- **기존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똑똑(e-Tuk Tuk)보급 협력, 전기 버스 입찰 프로젝트 수주**
 -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수주 기회 모색
- **산학연계 방식으로 기술 교육 실시 후 우수 부품 소재 GVC 진출 확대**

② K-뷰티의 태국 시장 진출 고도화

□ 수요 분석

- **(시장 수요 1)** 태국은 아세안 최대 화장품 시장이자 동남아 한류진원지로 한류 열풍이 한국 화장품 (K-Beauty)에 대한 수요로 연결
 - 2019년 태국 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72.7억 달러로 아세안 최대 규모이며,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15위에 해당
 - 2020년 태국 화장품 시장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성장세로 전환 예상(유로모니터)

〈태국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태국 화장품 시장	5,608.3	5,976.9	6,35.6	6,812.3	7,269.5
전년 대비 시장 증가율	8.2	6.6	6.7	6.9	6.7
세계 시장 내 비중(순위)	1.2(17)	1.2(16)	1.3(16)	1.2(16)	1.5(15)

자료: 유로모니터

- 품목별 시장규모는 스킨케어(39.0%), 헤어케어(14.6%), 색조화장품(12.1%), 덴탈케어(11.4%), 샴푸 용품(9.8%) 등의 순이며,
- 태국 소비자들은 더운 나라 특성상 자외선 케어 제품의 수요가 꾸준하며, 미백 또는 브라이팅 기능에 높은 관심 보유

〈태국 화장품 품목별 시장규모〉

(단위: 백만 бат,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증감률 (2018~2019년)
화장품 시장	185,595	197,974	211,536	225,731	100.0	6.7
스킨케어	71,110	76,302	82,109	88,088	39.0	7.3
헤어케어	28,299	29,550	31,123	32,962	14.6	5.9
색조화장품	21,661	23,490	25,478	27,407	12.1	7.6
덴탈케어	20,471	21,991	23,615	25,666	11.4	8.7
샤워용품	19,396	20,427	21,202	22,020	9.8	3.9
향수류	7,902	8,441	9,012	9,554	4.2	6.0
데오도란트	6,247	6,423	6,648	6,888	3.1	3.6
자외선 케어	4,001	4,484	5,082	5,562	2.5	9.4
제모용품	345	351	361	365	0.2	1.2
기타	6,165	6,515	6,906	7,220	3.2	4.5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 **(시장 수요 2)** 화장품은 한-아세안 FTA 체결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으로 화장품의 단계적 세율 인하 및 2017년 전면 무세(0%)가 적용되면서 연간 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9년 태국의 대 한국 화장품류(HS 3304~3307) 수입 규모 첫 감소세 전환
 - 전반적인 태국의 화장품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류의 수입 감소는 태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포화 및 태국 소비자 사이에서 K-뷰티에 대한 신선감이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 코로나 상황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선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기

〈태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규모〉

(단위: 백만 бат, %)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2018~2019년)	비중
수입 합계	1,017	1,235	1,342	8.7	100.0
대 한국	115	130	120	-7.7	8.9

주: HS 3304, 3305, 3306, 3307 합산, 자료: Global Trade Atlas
자료: GTA

□ 역량 분석

- **(현지 역량)** 글로벌 기업 및 태국 현지 기업이 고루 발달
 - 태국은 40년 이상의 OEM 역사를 보유한 국가로 최고급 품질의 화장품도 생산 가능
 - 약 2,000개의 화장품 OEM 업체가 존재하나 화장품 원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
 - 다양한 허브(약초) 재배국으로 약초 성분의 천연 화장품 제조 가능
 - * Unilever, L'Oreal, Colgate-Palmolive 등의 글로벌 기업 진출, 태국 현지기업BSC, Mistine, Giffarine 등은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근 국가에도 생산시설 보유

○ **(우리 역량) 우수한 품질, 매력적인 패키징 및 디자인, 기능성 화장품 등 R&D 역량 우수**

- 태국 내 아모레퍼시픽, 스킨푸드, 미샤 등이 판매법인 형태로 진출, 코스맥스 현지 공장 설립

□ **협력 방안**

- 태국 진출 한국계 홈쇼핑 플랫폼, 태국 라자다, 쇼피 등 대표 이마켓플레이스 플랫폼, 태국 유명 뷰티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뷰티 판매 채널 다양화 및 고도화, 일반인을 통한 리뷰 마케팅 진행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 극대화

- 한류박람회, 한국우수상품전, K-Beauty 사업을 통한 B2B, B2C 접점 확대

- 화장품과 기타 유망 소비재 연계 또는 화장품과 한류 콘텐츠 연계 사업 개치를 통한 대형 유통망 매칭

* K-Beauty를 K-Fashion, K-Pop, K-Food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전시·홍보·판촉수행

□ **헬스케어 분야 협력**

□ **수요 분석**

- **(정책 수요)** 제 12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17~2021) 내 '공정사회 실현 및 불평등 축소'를 위한 원격의료 등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

- 12대 미래 산업에 고급의료 및 웰빙관광, 의료 허브 포함, BCG 경제모델 추진을 위한 4대 핵심산업에 의료 및 웰니스 포함

- 태국 정부는 유전자 치료, 백신, 복제 의약품, 의약품 개발, 원격의료, 임상실험 등을 개발하여 태국을 아세안 의료허브로 육성하고,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학 발전 추진

- **(시장규모)** 2018년 태국 헬스케어 지출액은 정부와 민간분야가 각각 144억 달러와 44억 달러로 정부 지출액이 약 76.6% 차지

- 2019년 기준 태국 헬스케어 지출액은 206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까지 연평균 6.8%가량 성장하며 259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Fitch Solutions)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19년 약 295달러에서 2024년 약 369달러로 증가할 전망

- 태국은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국가이며,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헬스케어 관련 수요는 꾸준한 증가 예상

- 단 시약 및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 확대 전망

-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용 장갑, 방진복 등 방역관련 의료기기 수요 증가 및 원격의료 수요 및 필요성 증대

* 의사 대비 환자 수가 3,000명(방콕 지역 1:700, 주요 지역 1:1,500) 수준

- 태국의 의약품(HS 30)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2.3% 감소한 25.1억 달러 기록

- 반면, 2019년 태국의 의약품 수출 규모는 5.9억 달러 수준으로 의약품 분야 만년 무역수지 적자 발생

- 태국의 대(對) 한국 의약품 수입 규모는 지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7년 6,700만 달러에서 2019년 8,700만 달러로 증가(12위)

〈태국의 의약품 수입현황(HS30)〉

(단위: 백만 бат, %)

연번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계	2,282	7.1	2,571	12.7	2,511	-2.3
1	독일	319	8.1	380	19.2	371	-2.3
2	미국	306	10.1	338	10.4	308	-8.8
3	프랑스	169	0.7	187	10.8	193	3.3
4	인도	117	2.2	158	35.6	151	-4.8
5	일본	96	7.0	124	29.3	138	11.3
12	한국	67	12.4	84	25.0	87	4.3

자료: GTA

- 태국의 의료기기(HS 90)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6.8% 증가한 6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3년 연속 증가
 - 2019년 태국의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54.1억 달러 수준으로 수입대비 6.9억 달러 적자
 - * 한국은 태국의 제 15위 의료기기 수출국이며, 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학용 기기(HS 9018), 렌즈(HS 9001) 등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
 - 태국의 대(對) 한국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면서 9위를 기록

〈태국의 의료기기 수입현황(HS90)〉

(단위: 백만 бат, %)

연번	국가명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계	5,603	3.5	6,013	7.3	6,419	6.8
1	일본	1,456	2.0	1,568	7.7	1,649	5.1
2	중국	1,045	2.8	1,169	11.9	1,210	3.5
3	미국	682	-1.3	672	-1.5	716	6.6
4	말레이시아	330	13.2	383	16.1	497	29.7
5	독일	410	16.6	431	5.0	490	13.8
9	한국	117	1.6	114	-2.5	128	12.2

자료: GTA

□ 역량 분석

- **(현지 역량)** 정부제약청(GPO)에서 국립병원 및 일반 내수 공급용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 및 공급, 안센,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현지 투자 진출 활발
 - 복제약품 및 의약 완제품 생산 비중이 높으나 활성원료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 **(우리 역량)** 모바일 진료정보시스템 솔루션, 원격 진료기반의 U-헬스케어 사업 활발, 초음파영상진단 장치, 진단시약, 항생제 제조 등에 강점 보유
 - IT 응용 등 특화된 의료기기로 국제 브랜드와의 경쟁 가능

□ 협력방안

- 디지털 헬스케어 로드쇼 개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식약청 인증정보 교환
- 태국 인증대행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 기업 진입장벽 완화
- 태국 의료기관 내 IoT 접목 가능성 타진을 위한 한-태 기업 간 협업 기회 발굴
- 태국 공중보건부, 식약청, 정부계약청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 차원의 협력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방안 모색(G2G)

4 교육 분야 협력

□ 수요 분석

- **(정책 분석)** 태국 정부는 15년 국가교육계획(2017~2031)을 제 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2017~2021) 및 20년 국가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
 -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디지털화 및 세계화 추세**에 적합한 인력 양성이 목표
 - * 단기 목표로 IQ 세계 평균 이상, 세계학력평가(PISA) 500 이상, 장기 목표로 전 연령대의 평생교육 실시 추진
 - ** 디지털 문맹 해소, 개방형 온라인 강좌 플랫폼 제공, 영어 학습 모바일 앱 및 시스템 개발, 디지털 도서관 구축, 미디어 교육 실시 등
- **(높은 한국어 학습 수요)** 태국은 싼남방 지역 최대의 한국어 학습국으로 2008년부터 한국어를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 2018년부터 한국어가 대입 선택과목능력시험(PAT)에 편입
 - 2019년 기준 한국어 개설 국립 중고등학교 수 133개, 한국어 수강생 4만 583명, 한국어 교사 수는 205명(태국인 160명, 한국인 45명)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 2019년 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응시자: 3,731명

□ 역량 분석

- **(현지 수요 및 역량)** 높은 소득격차로 교육 양극화, 어학능력 낮은 편, 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낮았으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학습 등 향후 관심 확대 기대
 - 단, 태국 내 인터넷 보급 및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태국인들의 정보 접근권 향상이 에듀테크 시장 성장요인으로 작용
 - 성인들의 재교육 및 자기계발 수요 증가 등이 교육시장 내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하려는 기업가들의 의지와 맞물려 에듀테크 분야 성장 가능성 있음
 - * 에듀테크 분야는 태국 내 다른 스타트업 분야 대비 성장률이나 자금 모집이 낮은 편으로 테크 스타트업의 약 10%에 불과
 - ** 태국 내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23개(자료: 국가혁신기구)

◦ (우리 역량) 정부 및 민간 분야 모두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진출/전수 경험보유

- 정부 차원에서 아세안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사업, 현직 직업계고 교사 컨설턴트단 태국 파견을 통한 컨설팅 실시, 현지 협력 학교와 우리나라 직업학교 간 매칭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
- 민간 차원에서 클레이, 수학 교육 분야 프랜차이즈 태국 기 진출, 라이선싱 사절단 등을 통해 판권 수출, 플랫폼 수출 논의 활발

□ 협력방안

- 사회적인 과제(교육, 빈곤, 환경 등) 해결 등 현지 니즈가 있는 분야와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연계하는 상호 호혜적인 전략 필요
- 동남아교육장관기구와 협업을 통해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총 11개 동남아 교육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 지원

SEAMEO(동남아교육장관기구)

- 동남아시아 11개국 교육,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유네스코 산하기구)
 -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 (주요 역할) 교육, 과학, 문화와 관련된 특별 예산집행, 사업개발 및 수행, 교육 프로그램 이행 등
 - (추진 사업) 세계은행과 함께하는 언어교육 프로젝트, 동남아시아-유럽 연계 E-학습 프로젝트, ICT 활용 에이지 예방교육 프로젝트, 지역 학교 인터넷 설치 프로젝트, 유엔과 함께 한 위생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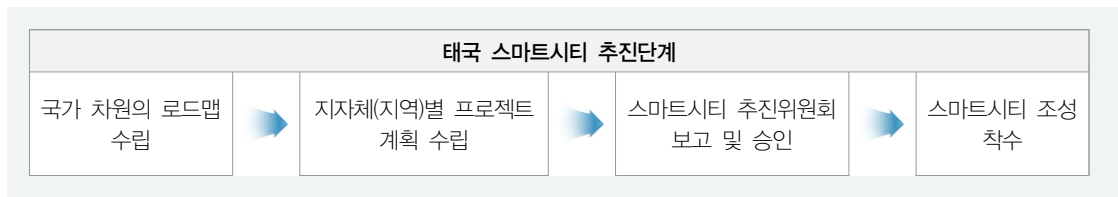
- 산-학 연계를 통한 우수 직업인력 양성 지원, 태국 우수 장학생 한국 학위 취득 기회 제공 확대
- 교육 콘텐츠 분야 사절단, 로드쇼, 전시회 개최를 통한 우수 콘텐츠 보급기회의 장 마련
- 한국어 교육인력의 교수법 향상, 한국어 교재 개발 협력

다. (G2G, B2G) 스마트시티·인프라·환경 프로젝트 협력

① 태국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 수요 분석

- (정책 수요) 태국 정부는 ‘Thailand 4.0’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77개의 스마트시티 조성 착수 예정
 - 태국 정부 ‘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는 2020년 7월까지 총 39개의 지자체로부터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서 수령 완료, 2021년 내 스마트시티 조성 착수 전망
 - * 디지털경제사회부, 에너지부, 교통부 장관 3명과 10개 부처 사무차관 등 총 20명으로 구성
 - 푸켓, 치앙마이, 콘깬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며, 방콕과 EEC 경제특구 3개 지역(춘부리, 라용, 차츰사오)을 스마트시티 개발 지역으로 추가



-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구축을 목표로 공동 협의 중
 - 태국을 아세안 국가 스마트시티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역량 분석

- **(현지 역량)** 지자체 등의 관심도는 높으나 경험 및 기술 부족, 예산 조달 상의 문제 등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유치를 적극 희망
- **(우리 역량)** IT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 분야 기술력 보유
 - 부산, 인천 등 국내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및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 존재, 태국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
 - 태국 스마트시티 7대 조성 분야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유사점이 다수 존재하여 태국 진입에 유리

〈태국 스마트시티 조성분야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비교〉

 태국 스마트시티 분야(6대)	 한국 스마트시티 모델(7대)
① 스마트 이코노미(데이터 및 네트워크)	① 스마트 에너지
② 스마트 이동성(교통 및 물류)	② 스마트 행정
③ 스마트 리빙(헬스케어 등)	③ 스마트 안전
④ 스마트 피플(교육 등)	④ 스마트 교통
⑤ 스마트 거버넌스(행정서비스 등)	⑤ 스마트 헬스케어
⑥ 스마트 에너지(전력 효율화 등)	⑥ 스마트 에코
⑦ 스마트 환경(오염 최소화 등)	⑦ 스마트 데이터

□ 협력방안

- 각 지자체(지역)별 프로젝트 정보 발굴을 통한 협력 기회 모색 및 조성 방식에 따른 유망품목 진출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oT기술 기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고속철도 등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품목 및 솔루션 등

- 정부 간 협력 사례를 활용한 패키지형 진출 추진

* (곤겐)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국토부, ITS협회), (EEC) 3개 공항연결 고속철도 프로젝트, (한국철도시설공단), 스마트 산업 단지 조성(나공사) 등

②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 태국 교통 인프라 개발

- 태국 정부는 물류 및 교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계획(2015-2022)을 추진 중
 - 7년간 총 3.38조 бат(1,033억 달러)을 투자하는 투자 프로젝트

태국의 인프라 개발전략(2015-2022)

◎ 목표: **물류 및 운송비 절감**을 통한 태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

2015-2022 인프라 개발계획(1,033억 달러)

도시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	국가 고속도로 확장 및 개발	방콕 등 수도권 대중교통 개발	공항 수송능력 확충	항만 네트워크 개발
 철도 • 철도 인프라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 국경지역 연결 6개 주요 복선 철도 건설	 대중교통 • 방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공사 • 천연가스버스(NGV) 3,183대 조달			
 도로 • 주요 경제지역과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 개발 • 고속도로 신규 건설	 공항·항구 • 항공수송능력 개선 • 항공 산업단지 설치 • 걸프만·안다만해 인근 항구 개발			

자료: 태국교통부(MOT), 태국투자청(BOI)

- 태국 경제상황운영센터는 유관부처에 1.22조 бат(384억 달러) 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속 지시

2020년도 회계예산 내 편성 완료된 인프라 프로젝트

- 지하철/복선철도/모노레일
 - MRT 레드라인(Bang Sue-Rangsit; Bang Sue-Taling Chan 구간)
 - MRT 브라운 라인 확장(Khae Rai - Yaek Lam Sali)
 - MRT 퍼플 라인(Tao Poon-Rat Burana)
 - 복선철도 2단계(Bangkok-Nakhon Ratchasima section)
 - 지방 대중교통 프로젝트: 푸켓, 치앙마이, 나콘 라차시마, 핫야이 모노레일 건설
- 도로: 북부 3단계 고속도로, 카투-파통 고속도로, 방콕항구-방나 옛 나룻 고송도로, 찰롱랏-나콘나옥-사라부리 고속도로, 우뜨라피묵 고속도로(랑싯-방파인)
- 항구: 맵파뚱 제 3차 개발 프로젝트

- EEC정책위원회는 2020년 10월 1.18조бат(478억 달러) 규모의 3개 신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승인
 - EEC와 지역산업 연결성 강화를 위한 1) 3개 항구 연결성 증대(240억 бат) 2) 심해항구, 고속도로, 복선철도와 걸프만 및 안다만해 연결(1,680억 бат) 3) 육교건설(9,900억 бат)

□ 협력방안

- 태국 내 경험이 풍부한 현지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교통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보
- 태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국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ITS) 구축 협력 건을 경험 의제화
 - 태국 교통부는 교통부문의 스마트 이동성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정보 수집, 도로 내 센서 설치, 교통정보 입력, 교통상황 파악을 통한 지능형교통관리체계(ITS)를 구축할 계획
 - 2018년 3월 체결된 한국과 태국 ITS협회 간 MOU체결 이력을 바탕으로 유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증대 및 태국 도로교통 프로젝트 경험 의제화 고려

③ 환경 관련 프로젝트 협력(폐기물/물관리)

□ 태국 오염관리계획

- 태국 정부는 수자원과 대기의 품질 개선 및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오염관리계획(2017-2036) 추진 중

〈태국 오염관리 계획(2017-2036)〉

[1차 전략] 오염원 방지 및 감소	· 친환경 제조, 친환경 농업, 친환경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친환경 물류 및 교통,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소비 강조 및 지원
[2차 전략]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의 통제 및 처리 효율성 증대	· 유해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산업 폐기물, 폐수 등의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며 자동차 매연이나 흡연 등 오염원 조사 및 통제
[3차 전략] 오염 관리시스템 개발	· 경제적·사회적 조치, 법적규제 강화, 지역 사회 부문 간 협력,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해 전반적인 오염 관리 시스템 개발 집중

자료: 오염통제국

- 오염통제국은 2019년 12월 ‘오염관리 3개년 액션플랜(2020-2023)’을 발표

〈태국 오염관리 3개년 액션플랜(2020-2023)〉

구분	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대기오염	개선 목표(지역)	4대 지역 100%		
		방콕, 사라부리 나프란, 라용 맵따뚱, 북부 5개주		
수질오염	개선지역(지역)	4개 지역의 최소 60%	18개 지역의 최소 60%	21개 지역의 최소 60%
쓰레기(폐기물)	개선지역(지역)	77개주 중 최소 80%	77개주 중 최소 80%	77개주 중 최소 80%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및 소비	제품수	5개	5개	5개
	참가기관/지역 수	60%	65%	70%

자료: 오염통제국

- (협력방안)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노하우 공유, 기술지원, 오염관리 시스템 및 대응 제품 관련 로드쇼 진행

* KOTRA 방콕무역관에서 태국 오염통제국 등 정부기관, 공기업, 오염물질 처리 기업 등을 모집하고 한국 환경부와 KOTRA 본사에서 오염관리 시스템 및 제품 수출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해 온라인 피칭, 1:1 수출상담회 등 실시

□ 태국 수자원 개발 계획

- 태국 정부는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개년 수자원 관리 계획(2018~2037)’을 추진 중
 - 2017년 ‘국가 수자원관리실(ONWR*)’을 설립하여 왕립관개청(RID**), 지방수도공사 등 수자원 관리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
 - * ONWR; The Office of the National Water Resources
 - ** RID; Royal Irrigation Department
- 국가수자원관리실은 2020년 7월 2021년* 물관리 액션플랜 승인
 - 향후 3년간 진행 프로젝트 타킷 수정, EEC지역 물관리 프로젝트 진행을 승인
 - * 2021년 회계연도: 2020년10월 1일~2021년 9월 30일
 - 10개 유관부처, 30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총 예산 1,000억 바트(32.1억 달러) 이상의 2만 7,275개 프로젝트 승인
 - 국가수자원관리실은 또한 2023년까지 수행할 대규모 프로젝트 557건을 승인
 - EEC 특별구역 내 해수를 식수로 전환하는 물관리 프로젝트 14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결정
- 폐수관리공사(WMA: Wastewater Management Authority)는 2억 바트(652만 달러) 예산 공급을 통해 4년간 48개의 프로젝트 시행 예정

〈20개년 수자원관리 계획(2018~2037)〉

전략	2018~2022년 (5년)	2023~2027년 (5년)	2028~2037년 (10년)	2018~2037년 (20년)
1) 충분한 식수 및 수도물 공급				
1.1 수도시스템 개선(마을 수)	256	—	—	256
1.2 훼손된 수도 시스템 수리 및 수도물 생산량 증대(마을 수)	5,472	5,157	3,905	14,534
1.3 주요 도시, 관광지 등에 물 공급량 증대/표준화(가계)	789,980	1,150,000	2,300,000	4,239,980
2) 안정적인 농업 및 산업용 물공급 시스템 확보				
2.1 농업 분야 물 사용을 감축 지원(라이)	150,000	150,000	300,000	600,000
2.2 현 수도관시스템 용량 개선(m³)	6,114	167	75	6,356
2.3 농업 분야 수자원 공급 개선(m³)	2,701	3,722	5,965	12,388
2.4 신규 수자원, 수도관 시스템 개발(개)	2,312	2,591	2,429	7,332
2.5 신규 대체 수자원 개발 (예: 해수의 담수화)	SEZ, ECC, 주요 섬 등	SEZ	주요 관광지	SEZ, 관광지
3) 배수 체계 효율성 향상(홍수 관리)				(단위: 개)
3.1 주요 수로의 배수 체계 개선	499	340	395	1,234
3.2 도시 홍수 예방(지역 수)	153	211	400	764
4) 수질 관리 및 수자원 보호				
4.1 초기 물낭비 감소	100%	10%	40%	50%

4.2 폐수처리 효율성 증대(개)	100	185	456	741
4.3 13개의 제방 내 예코 시스템 균형 확립	5(중부)	3 (동부 및 서부 해안)	5 (남동, 남서지역)	13
4.4 천연수원 보호 및 개선 (강/운하/지역 기반)	20년 간			
5) 삼림분수령 보호 및 토양 침식 예방	(단위: 라이)			
5.1 산림분수령 보존	734,000	853,500	1,936,741	3,524,241
5.2 산림분수령 내 토양 침식 예방	1,240,000	5,400,000	14,810,000	21,450,000
6) 관리계획				
6.1 관련 법령 개정	20년 간			
6.2 수원관리계획 설립	20년 간			
6.3 물관리 관련 연구	20년 간			

- **(협력방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국내 물분야 우수 강소기업 등이 태국 도시홍수예방, 폐수처리 효율성 증대, 수도관 시스템 개선 관련 자문 및 지식공유, 관련 시스템 수출

④ 에너지 분야(신재생에너지) 협력

□ 태국 전력 수급 계획

- 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 증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 확대, 환경보존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고자 **통합 에너지 청사진(2015~2036)**을 구축
 - 청사진의 5대 추진 목표는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비용절감, 환경보존, 지속가능 정책 추진, 취약 계층 대상 사회경제적 지원이며 5대 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태국 통합 에너지 청사진(Thailand Integrated Energy Blueprint) 2015~2022〉

① 에너지 효율성 개발 계획 (Energy Efficiency Development Plan)	· 2036년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2010년 대비 30% 감축
② 전력개발계획 (Power Development Plan)	· 석탄 사용 비중 20~25% 수준 유지 · 대체 에너지 사용 비중 15~20% 수준 확대*
③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lan)	· 구획(zoning) 및 경쟁입찰을 통한 발전 · 설치용량 2014년 7,490MW에서 2036년 19,634MW 확대
④ 가스 로드맵 (Gas Roadmap)	· 가스 수요 제한 · LNG 체계 확립
⑤ 오일 로드맵 (Oil Roadmap)	· 바이오 연료 사용 비중 20% ·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주: 태국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6년까지 30%로 확대 추진 예정

- 태국 정부는 2018년 말 기존 전력개발계획 2015(PDP 2015)를 수정한 전력개발계획 2018(PDP 2018(2018~2037)) 발표
 - 2020년 10월, PDP 2018 수정안(PDP 2018(V1)) 승인
 - 총 발전용량을 2015년 대비 약 7,000MW 증가한 7만 7,211MW로 늘리고, 석탄 사용(화석연료)을 종전 23%에서 11% 수준으로 감축

-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종전 20% 대비 1%p 증가한 21% 달성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 내 에너지 발전 및 잉여에너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대체 에너지 발전 목표가 신규 도입
-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감소 목표 대폭 확대

〈PDP 2015와 PDP 2018(수정안) 비교〉

(단위: MW, 톤, %)

구분	PDP 2015 (2015~2036년)	PDP 2018 (2018~2037년)
총 발전용량	70,335	77,211
화력발전	7,390	1,200
신재생에너지 발전	12,105	16,243
지역사회 대체 에너지 발전	0	2,453
전력발전 시 CO ₂ 배출량	202027=99,128	202027=89,458
	202032=99,822	202032=90,228
	202032=N/A	202032=99,172

자료: 에너지정책기획실(EPP0)

- 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015년에 발표되었던 재생에너지개발계획(AEDP 2015)의 수정안인 AEDP 2018를 승인
 - 2037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총 전력발전 용량은 1만 8,696MW
 -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종전 20.1% 수준에서 34.2%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열 발전이 전체 재생에너지 수요의 41.6%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며, 열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탄이 신규 편입

〈재생에너지원별 목표 발전용량 비교(AEDP 2015 vs AEDP 2018)〉

(단위: MW, 백만 단위, %)

구분	설치용량(MW)			
	AEDP 2015		AEDP 2018	
	목표	계약용량(1)	PDP 2018 목표(2)	총 목표(1+2)
1.태양광	6,000	2,849	9,290	12,139
2.부유식 태양광	-	-	2,725	2,725
3.바이오매스	5,570	2,290	3,500	5,790
4.풍력	3,002	1,504	1,485	2,989
5.바이오가스	1,280	382	1,183	1,565
6.도시폐기물(MSW)	500	500	400	900
7.산업폐기물	50	31	44	75
8.소수력	376	239	69	308
9.대형수력발전	2,906	2,920	-	2,920
합계	19,684	10,715	18,696	29,411
총 전력수요(단위: 백만)	65,582	32,757	52,894	85,652
전력발전 내 재생에너지 비중(5)	326,119	326,119	250,204	250,204
최종 에너지 소비 내 재생에너지 비중(%)	20.1	10.0	21.1	34.2

자료: 대체에너지개발효율국(DEDE)

□ 협력방안

- 한국 태양광, 소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발전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태국 로드쇼 개최
 - 지방 행정 단위의 소규모(10MW 이하) 쓰레기 소각 발전, 바이오 에너지 발전에 적극 진출
- 에너지 프로젝트 사절단, 구매단 파견 등을 통해 10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납품 지원 기회 창출
- 태국 주요 IPP, SPP와 정부기관 및 국내 유관기관 간 정기 교류체제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 정보 신속 입수
- 2019년 회계연도 중 태국 총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1만 1,128MW로 전년 대비 1.9% 증가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을 위한 가상 인력교류 확대 방안

-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외 K-Beauty, K-Pop, K-Food 등 한류 콘텐츠 (화장, 춤과 노래, 음식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한국문화원 및 세종어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 내 온라인 강좌 교육지원을 통한 태국 내 한국어 학습자 증가 및 에듀테크 확산기여(플랫폼 지원 및 강좌 홍보 등)
- 대학교 등 양국 교육기관 간 MOU를 통한 온라인 교환학생 제도 도입을 통한 언택트 방식의 인력교류 지원

② 지속가능 CSR 활성화

- 1회성이 아닌 중장기적(3~5년)으로 시행 가능한 CSR 활성화

〈한국 기업의 대 태국 주요 CSR 활동 현황〉

기관/기업명	CSR 활동
CJ ENM,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 글로벌 CSR 프로그램 K-CONnected Project(2019) - 태국 오지 학교에 복합문화공간(Creative room)을 구축하고, 한-태 문화 소외 청소년 문화교류캠프, '오픈 뮤직' 작곡가 7인의 음악 멘토링 특강을 진행
현대자동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 기부 CSR(2019)
포스코, 타이삼성생명, LG전자CJ제일제당, 한태 교류센터(KTCC), 하나투어, GS홈쇼핑, 한태관광 진흥협회 등 KOTRA 주최)	· 태국 참전용사 후손 취업지원 CSR 행사(2014)

3. 향후 대(對) 태국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 정례화를 통한 이행점검 체계 가동

○ 2021년 경험위 공식 개최를 통해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 논의

- 제1차 한-태 경험위(2016년 3월) 주요 성과는 4대 주요 전략 분야 관련 경제협력 청사진 마련에 합의

* 태국 인프라 개발, 과학·기술, 무역 및 투자 증진, 문화·관광 및 인적 교류)

○ 한-태국 뉴딜정책에 부합한 분야별 신규과제 발굴 및 협력 강화

〈한-태 주요 협업분야 및 관련 부처·기관〉

협업 분야	한국 기관	태국 기관
인력 유치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산업부
차세대 자동차	산업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부, 태국산업연맹(FTI), 태국전기차협회(EVAT)
신재생에너지	산통부, 한전, 신재생에너지협회	에너지부
환경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교통 인프라	국토교통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통부, 태국ITS협회
헬스케어	보건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공중보건부, 태국 식약청, 태국 의료위원회, 헬스테크스타트업
교육	교육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스마트시티	지자체,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스마트휴먼테크협회	디지털경제진흥원
K-Beauty	산업부, 대한화장품협회	산업부, 태국투자청, 태국화장품협회

② 내·외부 협업과 소통을 통한 Collective Impact 효과 극대화

○ 혁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비대면 대중소 동반진출

- (신산업 지원) 수소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비대면 사업 공동 수행

- (컨소시엄) 타깃 지역별 유망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 산업, 지역 등에 따라 협회/기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ICT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기획, 프로젝트 발굴 등 거래선 공동 발굴 수행(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생협력 신남방정책 성과 창출에 기여

- KOTRA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대(對) 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중소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 주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순방 시 활용 및 신남방정책 성과 창출에 기여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현태	관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30	htkim@kotra.or.kr
2	윤하청	차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45	wlike186@kotra.or.kr
3	이재욱	차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55(70)	jwlee@kotra.or.kr
4	공태원	차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55(20)	twkong@kotra.or.kr
5	윤장욱	과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55(40)	lylayoun@kotra.or.kr
6	최용은	과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35	choiye@kotra.or.kr
7	김민수	과장	방콕무역관	+66 2 035 1555(21)	minsookimbkk@kotra.or.kr

KOTRA자료 21-065

2021 국별 진출전략 태국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1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778-6(93320)
979-11-6490-688-8(95320)(PDF)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